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2-1003 1982년 12월10일(금) & 1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December 10 &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JAN 4 1983
DEC 10 1982

불법체류자특별사면

이민자문위 건의, 7월이전 입국자 대상
3년내 자진신고 : 6년간 유예기간

연방이민성산하 자문위원회는 8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약 20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특별사면을 내리도록 건의했다.

캐나다 이민·고용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민성이 앞으로 3년간을 불법이민자 특별사면기간으로 지정, 이 기간내에 신고하는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6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정식영주권을 주도록 건의하면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성자문위원회는 82년7월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 한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자문위원회의 이같은 건의는 캐나다이민법률가협회나 국제착취금지협회(Intercede) 등으로부터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이들 양협회는 6년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국제착취금지협회의 조정관인 쥬디스·라머레스여사는 "이 유예기간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를 오히려 망설이게 한다. 1973년에도 사면령이 내렸으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신고후 유예기간동안 추방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를 방문하고 출국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불법체류자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입국자와 출국자의 신원, 날자등을 컴퓨터에 기록, 불법체류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민자문위원회는 또 캐나다는 불법체류자들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민국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강화하던지 경찰이 이를 조사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민국은 현재 자체조사관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을때는 연방경찰(RCMP)에 의뢰하고 있다.

불법이민자의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과거 특별사면령에 반대해왔던 액쉬디이민장관은 현재 이 보고서에 대해 논평, 각 에트닉그룹들의 반응을 조사한후 곧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롬·소사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특별사면건의 목적은 여러해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죄 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고 불법이민자 사면이 전체적 이민쿼터량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변호사협회의 맨델·그린회장은 "지금이 특별사면령이 내려질 적절한 시기이긴 하나 문제는 6년간의 유예기간이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법률가협회 바바라·잭맨여사는 "자진신고하는 불법체류자에게만 사면령을 적용하고 이민국 단속에서 걸려드는 사람은 예외로 해야된다"고 말했다.

한국세관 규제강화
시계·향수등 일부품목

(서울9일=연합)한국 세관은 오는 1월1일부터 해외여행후 귀국하는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외국산 물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품목은 중공산 의약품, 테니스·라켓, 카셋·래디오, 팔목시계, 카메라, 향수, 볼펜, 비데오·테입등이다.

세관 소식통들은 테니스라켓 1개, 미화 $135 이하짜리 카셋·래디오 1개, $67이하 손목시계 1개, $135 이하짜리, 카메라 1개, 향수는 2온즈 12개, 비데오·테입 2개로 제한되며 가격은 도매가격 기준이다.

새 규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GM직접경영 손 떼
대우자동차로 개명

(서울 9일=연합) 미국의 GM자동차회사는 한국의 대우그룹에 합작회사인 새한자동차의 경영을 위임하고 합자회사의 이름을 「대우자동차」로 고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9일 서울에서 대우의 김우중회장과 GM의 존·벡코매부사장간에 서명되었다.

이합의서에 따라 GM은 대우자동차의 기업활동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이사를 파견, 경영자문만하게 된다.

사진대회 입상작시리즈…⑧
1등…"소녀의 꿈"
촬영 : 정효생 · 모델 : 이현종

국영기업체적자 계속 증가
국회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적

(오타와)국영기업체가 늘어나면서 연방정부의 적자폭이 점점커지고 있다.

캐네스·다이 국회감사위원장은 7일 국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340억달러에 달하는 국영기업체의 적자가 국회나 국민도 모르게 정부예산을 까아 먹었다면서, 만약 국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영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조정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감사위원장은 금년도 감사에 대부분의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페트로·캐나다(Petro-Canada: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가 피나회사를 사들인것등은 흑막에 쌓여 연방정부의 에너지청, 교통부등의 감사가 애를 먹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감사원조사관들이 에너지청을 감사할 때, 페트로·캐나다의 적자를 따지자, 에너지청관리들이 이것은 정부의 사업이 아니고, 페트로·캐나다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은 국민의 세금에서 170억달러를 축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보고서는 CN(국영철도회사), CBC(국영방송국)등의 국영기업체들도 인사의 효율화, 경영부실등으로 세금을 낭비, 정부의 재정적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여변호사 살해범
2년만에 모습공개

2년반전 변호사 선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지 1시간만에 집층계에서 피살된 시체로 발견된 바브라·슐리퍼양의 살해범이 1년전에 체포되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신분공개가 계속 보류되어 오다가 법정투쟁끝에 7일 마침내 범인의 성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살해범인은 페르난드·로빈슨군으로 16세생일을 9일 앞둔 지난 80년 3월 슐리퍼양을 비치지역의 그녀의 자택에서 때려 숨지게 하고 도망갔다가 지난해 8월 체포되었다.

로빈슨군은 올해 18세로 이 사건은 미성년범죄로 다투어질 성격의 것이나 7일 재판정에서 카스딘판사는 캐나다의 새 헌법조항을 예로 들어 비록 미성년범죄라 할지라도 사건의 성격상 범인의 사진과 이름은 언론에 밝힐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통 미성년범죄건은 재판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토론토·선지등 언론단의 변호사와 범인 로빈슨의 변호사는 2일간 "코뮤니티의 주요 관심거리사건인 경우 언론은 무제한 취재·보도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새 헌법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었다.

바브라·슐리퍼양(왼)과 8일 모습이 공개된 살해범 로빈슨군

개솔린 가격 전쟁 재발
레귤러 리터당34.8센트

스카보로지역 일부 주유소의 개솔린가격이 레귤러 리터당 34.8센트내지 36.7센트로 떨어지는 바람에 메트로·토론토의 개솔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전망이 크다.

업계 대변인들은 개솔린값이 떨어지는 이유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제원칙에 의거한다고 분석했다.

온타리오주의 유류판매는 작년도에 비해 9%가 떨어졌으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개스가 적게 드는 차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스카보로 엘즈미어와 맥코완, 빅토리아·파지역의 10개주유소는 8일 현재 언래디드·개스를 37.2센트내지 39.1센트, 프리미엄(수퍼) 언래디드를 38.2센트 내지 40.3센트에 팔고 있었다.

82년 들어 수차례 가격전쟁을 치른 메트로의 개솔린 업계는 앞으로 적어도 18개월내에 개솔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토비콕에 $6천만 쇼핑몰
하이웨이 27과 렉스데일

이토비콕의 하이웨이 27과 렉스데일·블루바드 북서코너의 48에이커 대지에 64만 평방피트 규모의 큰 쇼핑·몰이 내년봄 시공, 84년 가을 완공될 예정이다. 심프슨과 베이등 대백화점이 들어설 이 쇼핑몰은 캐딜락·페어뷰회사가 건물주로 총 건설비는 6천만달러이며 지난주 온타리오 시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새로 들어설 쇼핑몰은 1백만 스퀘어피트 욕데일 쇼핑·몰의 3분의 2정도 크기이다.

은하 보석
다이야몬드·순금 란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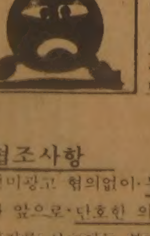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연말연시 자녀들에게 최대의 선물
ENCYCLOPAEDIA BRITANNICA

◉Encyclopaedia Britannica 26권(국민학교~대학원)
◉Britannica Discovery Library 12권(유아~유치원)
◉Yoyng Children's 백과사전 16권(유치원~국민학교)
◉Britannica Junior 백과사전 15권(국민학교~중학교)
◉가정생활용 Handyman 백과사전 'Do-It-Yourself' 21권
◉Britannica 세계명작세문학전집 전54권
▲ 그외 의학사전·요리책·Holy Bible등 선물용 Order
(delivery는 3주-4주 걸림.)
Please Order to Miss백 767-1702(오후6시 이후)

선미광고는 KBS 독점으로
직수입 1,000개 돌파!!
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밝은 화면으로 교육, 종교 문화, 사극, 현대극, 영화, 문학, 가요, 희극, 비극을 준비했읍니다.

VIDEO TAPE
3/4 ○BETA ○VHS
방송지원… 시카고 뱅쿠버 캘가리 에드몬톤
무료봉사
토론토 한인노인회 매주 1회
협조사항
선미광고 협의없이·무단 복제 영업하는 자가 있는 바 앞으로·단호한 의법조치할 것을 경고하며, 이런 업자를 신고하는 분께·300불을 드리겠읍니다.
미도파몰 3 FLOOR
454 BLOOR ST.W. TORONTO B.534-6430 R.363-652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츄리용 생나무 가격 평균 $20

공원서 잘라쓰면벌금 $500

크리스마스 츄리를 생나무로 만들 계획이라면 츄리용 나무를 빨리 사두는게 좋다는 것이 정해봉(45세)씨(사진)를 비롯한 화초·나무 판매업자들의 충고이다.

현재 시중가격은 대개 한그루에 $20정도. 물건이 딸리는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는 가격이 더 높아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무값을 아끼기 위해 공원에 가서 슬쩍 베어오는 것은 엄벌된다.

메트로 산림보호관리들에 따르면 앞으로 2주간 강력단속을 펼 계획이다. 작년에 관리들이 적발한 건수는 메트로 전역에서 20건이지만 경기가 더 악화된 올해는 더 많은 건수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고 $500. 작년에는 200수의 나무를 불법으로 잘라 4만5천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12월8일자 토론토·스타지기자에 실린 정해봉씨는 캐슬-프랭크 써브웨이 건너편과 영×웰슬리등 2개소에서 꽃, 화초, 나무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심장 개발비 850만달러 소요

최근 미국 설터·레이크·시티에서 일단의 의료진에 의해 치과의사였던 바니·크락씨의 심장에 이식된 플라스틱 인조 심장은 15년간의 연구끝에 850만달러의 개발비가 소요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하버·케슬·힐튼호텔에서 개최된 〈80년대의 의학기구 기술회의〉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토론토에 온 유타대학 연구소의 리드·하커 부소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하버씨는 자신은 인공심장팀의 멤버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연구노력을 가까이서 주시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식수술을 시종지켜본 동물연구소 소장 돈·올센박사로 부터 수술직후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올센박사는 동물실험을 통해 인공심장을 연구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하커씨는 이어, 어느 개인이 인공심장의 이식을 원할 경우, 기구값이 1만5천달러내지 2만달러이고, 수술비가 3만달러 내지 4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구유지및 보수비 5천달러와, 의사의 치료및 약품값이 추가로 5천달러 정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TC측 적자비명

메트로패스 초과판매

TTC의 월회수권 메트로패스(Metropass)가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려 TTC측은 재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울상이다.

32달러50센트짜리 메트로패스 판매에 날개가 돋혀, 금년 첫 9개월간 141만6천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았다고 TTC총매니저 알프·사비지씨가 말했다.

사비지씨는 "메드로패스제도가 80년5월 처음 실시되었을 때, TTC측은 회수권자 1명의 한달평균 이용률은 TTC의 수지분기점보다 3.7번이 많은 55.7번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TTC는 금년 첫 9개월간 50만7천5백명(월 5만6천389명)이 패스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한달평균 7만232명이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비지씨에 의하면 회수권 이용자가 월10만명의 넘어서면 TTC의 재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말했다.

대각사 공개법회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활산성수스님

대각사는 오는 12월19일(일) 하오3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법회를 개최한다.

비불교도들에도 공개되는 이번 법회에는 활산성수스님의 설법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별세한 창건주인 김평등심씨의 49제를 맞아, 이같은 공개 법회를 갖는 대각사는, 현재 혜관스님의 지도아래 매주일 법회를 갖고 있다.

이번 공개법회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을 거쳐 토론토에 오는 활산성수스님은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원로"라고 대각사 관계자가 4일 전했다.

대각사 전화는 463-8998.

"해병의 밤"

18일 캐나다군기지

토론토 해병전우회(회장 남상현)는 오는 18일(토) 「해병의 밤」을 갖는다.

예년처럼 다운스비유 캐나다군기지내에서 가질 이번 연말파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였다고.

연락처는,
송기선 621-2059,
이일모 691-3666,
하주용 769-5956.

치과치료비 인상

내년부터 6.5%

온타리오 치과협회가 주미 5천여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치료비 인상계획에 따르면 신년1월1일부터 치과치료비가 6.5%인상된다.

치과협회회장 더그라스·스미스박사는 "6.5%인상된다해도 영업경비를 감안할 때, 실제 인상효과는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청부는 치과치료비 인상을 통제하지 않는다.

<심사평>

촬영대회 심사를 마치고

전경수 (한인사진협회장)

◆전경수씨

금년도 사진콘테스트의 심사를 맡았던 위원들은 입상작을 선정해 놓고는 무언가 개운치 못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상작과 가작 8점중 특선을 위시한 5점이 단 몇 사람 참가했던 외국사람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의 콘테스트가 아니고, 당당히 외국인들과 경쟁하고 비교도 해보며, 우리도 남에게 상도 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출품자들이 작품선정과 제작에 너무 소홀한 듯하다. 입상을 목적으로 출품한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아무곳이나 가까운 드러그스토어같은 곳을 통해 프린트를 맡기고 찾아온 작품은 크로핑(트라밍)도 하지 않은채, 한번 내보기나 하자는 듯 무더기로 보내온 것같은 작품이 많다.

특선을 한 몬트리올의 리버노씨는 정성을 들여 한점 한점 자기손으로 만들어, 다른 작품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한 프린트를 만들었으며, 원색재현에 놀랄만한 솜씨를 보였다.

리버노씨의 특선작인 「미녀의 미소」는 모델의 앉은 자세가 정적이 아니고 극히 다이나믹하며, 역광에 가까운 뷸티한 광선을 리프렉타를 이용해 부드럽게 만들어 톤의 변화가 좋고, 질감(텍스추어)의 표현이 잘되었다.

결점이라면 배경에 드럼통이 보여 분위기를 상하게 했으며, 너무 답답할 정도의 구도를 잡았다고 하겠다.

1등인 정효생씨의 「꼬마와 단풍」은 한국어린이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이다. 표정도 잘 포착되었고, 광선처리도 잘되였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구도가 아쉽고, 비녀를 꽂은 듯하게 보이는 강한 하일라이트가 머리뒤를 횡단한 것도 결점이라 하겠다.

2등인 이응규씨의 「가을의 미녀」는 모델의 자세와 대담한 낮은 앵글이 잘 어울려 작품을 살렸다. 조리개를 더 열어서 초점심도를 낮추었다라면 복잡한 배경이 부드럽게 되어 인물이 훨씬 부각되었을 것이다.

3등인 미야시다씨는 암실기법을 써서 신비감을 주는 이색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가작들중에도 입상작에 못지않을 만큼 좋은 작품들이 있었고, 연착해서 심사에 들지 못한 최재권씨의 작품들도 좋았다.

사진이란 일단 샤터가 눌러지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암실에서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낙선감을 특선작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차기대회에는 촬영전부터 작화의도를 연구하여 좀 더 질높은 작품들을 낼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한인컴퓨터협회 총회

새회장에 박성수씨

캐나다 한인컴퓨터협회(COSKA)는 지난3일의 제4차 총회에서 새회장에 박성수씨를, 부회장에는 정재열씨를 각각 선출했다.

급속 발전하는 컴퓨터에 관한 연구를 위해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갖고, 한인사회의 참여도를 높이며,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4년전 창설된 COSKA는, 현재 165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이날 총회는 이임하는 이태영회장의 진행으로 사업보고, 회계보고및 새회장단 선출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단의 임기는 1년이며, COSKA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에 시작, 12월에 끝난다.

강찬영 변호사

20일 사무실이전

강찬영변호사 사무실이 오는 20일부터 이전한다. 그동안 블로아의 사무실이 협소해 넓은 장소를 물색하던중, 던다스와 팔리아먼트근처 캐비지타운에 3층 빌딩을 얻었다. 새 사무실의 주소는 410 Dundas East, 전화는 961-2417이다. 17일까지는 블로아사무실에서 계속 업무를 본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27>

출발 ⑧

『그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는 한참만에 이렇게 말했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신중하신 분이군요.』

『내가 지금 경찰과 통화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않소?』

『좋아요. 그렇다면 한가지 확인시켜드리죠. 지금 바로 힐튼호텔 10층5호실에 들어가보세요. 열쇠는 코피숍에 가시면 누가 전해줄거예요.』

『함정이 아닌가?』

『함정을 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알았소.』

그는 병원을 나와 코피숍으로 내려갔다.

코피를 마시고있는데 흐리흐리하게 생긴 청년하나가 다가와 그의 맞은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참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청년은 신문을 보는체하다가 도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참은 청년이 자리에 놓고간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밑에 열쇠가 놓여있었다. 그는 열쇠를 집어들고일어섰다.

구태여 감시의 눈을 피하고 싶은마음이없었다. 아직은그럴필요를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대머리 사나이 등에 깊숙이 칼이 박혀…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5호실쪽으로 재빨리 걸어가 문을 땄다. 문을 여는 순간역한 피비린내가 확끼쳐왔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illegible]. 맞은편 창가의 커튼이 반쯤 젖혀있어서 그 사이로 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한 사내가 빛을 온몸에 받으며 쓰러져있었다. 사내는 문 가까이엎어져있었는데 등에는 칼이 손잡이부분까지 깊숙이 박혀있었다. 그의 등판은 온통피에 젖어있었다. 등에 칼을 꽂은채 기어온듯 방 중간에서부터 핏자국이 길게뻗어있었다. 구두 밑창에 묻은 피가 끈적거리는 것으로 보아 살해된지 얼마안되는것 같았다. 그는 카피트에 구두를 문질렀다.

죽은 사내는 대머리였다. 참은피살자의 어깨를 움켜잡고 젖혀보았다. 그리고 얼른 도로내려놓았다. 죽은 사내는 아까 병원에 찾아왔던 그 대머리 남자였다.

『이럴수가…』

그가 미처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스럽게울렸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경 잘했소.』

그는 나직이 말했다.

『이젠 믿으시겠죠?』

『알겠소. 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딨지?』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는 명령을 어겼어요. 선생님한테 우리 정체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거예요.』

무자비하게 흘러나오고있는 여자의 말소리에 그는 치가 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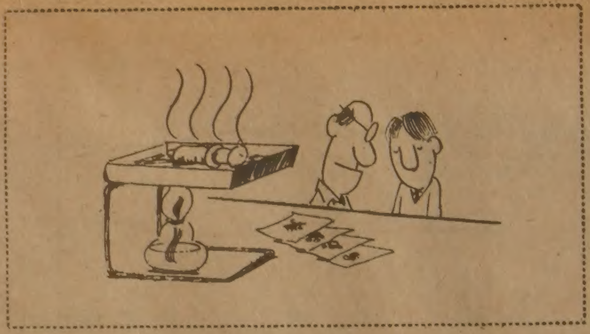
『어때요? 이젠 우리 부탁을 들어주시겠죠?』

그는 대답하지 [illegible]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朴男 그림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性病…어느누구도 나무라지말라

어느 TV프로에서 성병에 관한 내용을 다룬것을 보았다. 드라머식인데다 내용도 전전하여 교육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한편 또 걱정이 앞서기도했다.

이 프로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보았는지, 어쩌면 또 당분간 성병 노이로제환자가 많이 생겨날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말 병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걱정이지만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신경성환자도 골치인 것이다. 「나는 이런 사실 (직업적인 여성과 접촉한…)이 있으니 분명히 병이 있을 것이라」는 우김이다. 병자체의 전염률이 강하고 그런 직업여성에게 병이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백이면 백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계를 가졌다고해서 다 병이 전염되는것은 물론아니다.

또 노이로제인경우 성관계는 전혀 가진 경험이 없다는 사람들 특히 젊은 학생이나 순진한 청년층에서 많이 볼수 있다. 성병은 대체로 성관계가 전제가 되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성의 경험이 없었을 때에 비슷한 증상이 있다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성병은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다. 성병과 감별되어야 하는 증상들일 뿐이다. 따라서 물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대개는 증상이 경미하여 정결하게 위생적으로 다루는 것으로도 해소될수 있다.

문제는 정말 성병이 걸려 있으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거나, 아무 얘기나 듣고 자기식의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 두가지 경우는 아주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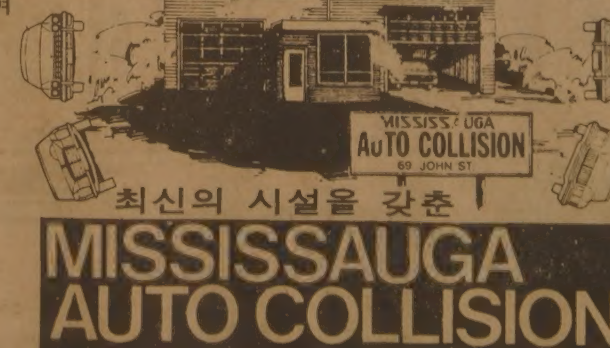
걱정을 해야 할 경우는 안하고 안해도 좋은 경우에는 배산같이 하는 경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얘깃거리가 많고 재미가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성병은 걸리기 쉬운 병이나, 서두르면 큰말없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이 「서두르면」이 문제가 되는데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서슴치말고 원사를 찾아야한다. 여기저기로 확인을 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믿을수 있는 (믿지못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동료의 하나로 부끄럽기는 하나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병원을 잘 가려 진찰을 하고 하자는대로 잘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성행위를 삼가는 것이 마땅하고 (되갚이려니 해야) 만일 이미 행위가 있었다면 내외가 같이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게 된다. 치료용 약품들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특별히 특이체질이 아닌 경우라면 약값은 싼 것이 보통이다. 고칠수 있는 병을 못 고치는 것은 자신의 해만이다. 아무도 나무라지 말아야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한다. 또 성병이 아닌것까지 지나치게 걱정하는 태도 역시 부끄럽고 용기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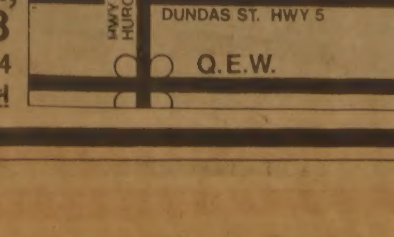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김장뉴스

김치의 맛은 좋은 고추가루와 맛있는 젓갈 선택에 달려있읍니다.

맛좋은 순 한국산 고추가루, 구수한 멸치젓 황새기젓, 향긋한 새우젓, 싱싱한 한국산 굴, 까기 쉬운 육쪽마늘등은 삼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아직도 일손이 모자라 김장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삼복식품(☎ 743-827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입에 꼭 맞게 김치를 담아드립니다.

◎주문 배달 환영

2437 FINCH AVE. W. ☎ : 743-8270
값싸고 신용있는
삼복식품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24년의 미스터리」

58년 蘇領추락 美 CIA첩보기

8명의要員 운명은…

지난4일 議會문서서 뒤늦게 밝혀져

(워싱턴—UPI) 1958년 어느날, 최소한 8명의 요원을 태운 CIA스파이비행기 1대가 소련영토에 추락했다. 탑승자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도 미국정부의 기밀사항이다.

이제까지 기밀로 취급,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CIA첩보비행기의 소련영공비행내막의 일부가 지난 주말 공개된 의회문서에 의해 드러나 화제가 되고있다.

의회의 기밀문서들에 따르면 이추락사건은 프란시스·그레이·파워스가 조종하던 U-2스파이비행기가 소련영공에서 격추되기 이미 3년전에 발생했다는것.

돈·리치상원 사료담당관은 최근 파워스의 비행기가 격추되지않았다면 의회는 이첫비행기추락사실을 알지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파워스사건은 상원외교관계위원회로 하여금 파워스가 생포된지 30일뒤인 1960년5월에 앨런·덜레스CIA국장에게 소련내에서의 미국의 정보수집활동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돈·리치는 설명했다.

이제까지 기밀로 취급됐던 이 의회문서는 지난4일 공개됐는데 국무성과 CIA는 이에대한 논평을 삼가고있다.

공개된의회기밀문서에는 덜레스CIA국장이 첫스파이기가 8-9명의 요원을 태운채 추락했다고 상원에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 상원외교관계위원회 대변인은 정부가 승무원의 운명에관해 알고있는 사실은 기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의회기밀문서를 편집한 리치는 동위원회소속 상원의원들이 파워스사건이 최초의 것인지 아닌지를 덜레스국장에게 추궁하면서 파워스사건이전에도 스파이기추락사건이 있었음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덜레스국장은 의원들질문에 「아닙니다. 몇년전에도 8-9명의 민간인요원을 태운 스파이기1대가 추락했으며 아직 승무원들에게 무슨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고있읍니다. 우리는 현재 교섭중에 있읍니다」라고 증언했다』고 리치는 덜레스의 말을 인용, 경위를 설명했다. 이 증언내용은 모호했으며 『덜레스는 승무원들의 생사에 관해 잘모르고 있는것같았다』고 리치는 말하면서 『덜레스는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했으며 사고원인이 기계고장인지 아니면 다른이유때문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1960년에 상원외교관계위원회의장직을 맡고 있던 J·윌리엄·풀브라이트 전상원의원(아칸사스주출신)은 5일밤 그로서는 이사건을 잘 기억할수없다면서 『CIA는 그들이 밝힐수 없는 사실을 의회에서 증언하기를 원치않았다』고 말했다. 풀브라이트전의원은 『나는 너무 고지식했기때문에 CIA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으며 곧 그사실을 잊고말았다』고 회상했다.

또 CIA는 소련상공에 수배번의 스파이비행을 시켰으며 미군용기들은 U-2기들이 1956년부터 비행을 개시하기이전에 벌써 소련영토위를 비행해왔다고 덜레스국장은 증언하고있다.

그리고 파워스의 U-2기가 격추되어 미국-소련초강대국간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국제문제가 발생하자 토머스·게이트스국방장관은 군용기의 소련영공비행은 『타국영토에 깊이 침투하는 유형의 비행이라기보다는 국경상공에 국한된 주변적인 성격의 비행』이라고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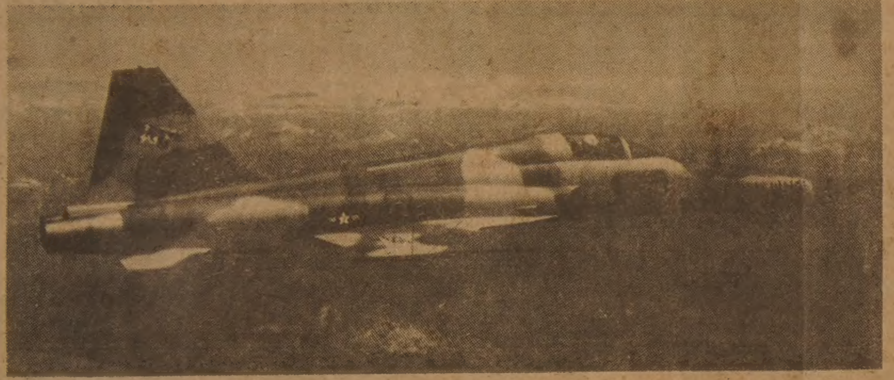
덜레스국장은 상원의원들로부터 격추된 U-2기의 비행목적이 무엇이냐는 추궁을 받고 소련의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및 공중반대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위한것이었다고 답변했다.

덜레스국장은 뒷날 풀브라이트위원장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스파이 비행들은 각각 구체적인 정보수집목적을갖고있었으며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적들에대한 부수적인 정보도 아울러 . 징하는것이었다』고 밝혔다.

파워스의 비행시기에관한 의원들의 질문에대한 답변에서 덜레스국장은 정치적인 배려가 아닌 기상조건이 비행일정을 좌우하는 주된 결정요소라고 말했다.

파워스의 U-2기가 추락됐을때 미국관리들은 맨처음 파워스가 사살됐을것으로 가정했었으며 당시 미항공우주국(NASA)은 미리 꾸며낸 각본에 따라 U-2기가 기상관측비행을 감행하다가 항로를 잃었던것이라고 거짓발표했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추락된 미첩보기 또 있었다—파워스의 U-2기가 소련영공에서 격추되기 3년전에 8-9명의 민간인요원을 태운미국스파이기 1대가 소련영토에 추락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의회기밀문서로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있다. 승무원들의 생사는 계속 미국정부의 기밀사항으로 남아있다. 사진은 미국이 사우디에 제공한 조기경보기인 노드롭 RF-5E정찰기.

"교섭중에있다"모호한증언만…
사고원인등 生死 여부 안밝혀
U-2機사건 3년전에 발생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를 밝혀가는 한국일보 533-2361

三國志 520

글·高羽榮·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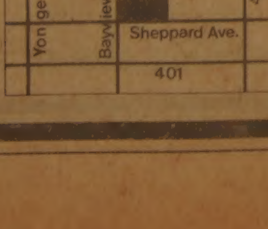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브룩·쉴즈의 공중곡예—매년 「스타들의 서커스」를 제작한 봅·스티버스의 정신적 후계자라고나 할 P.T.바넘이 TV로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브룩·쉴즈(사진), 제이미·린·바우어, 바비·벤튼, 미키·루니등을 명서커스 곡예사들로 만들어 등장시킨다.(헐리웃)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 폭스 ● 세블 ● 라쿤
록키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금번 SONY 회사에서는 닥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인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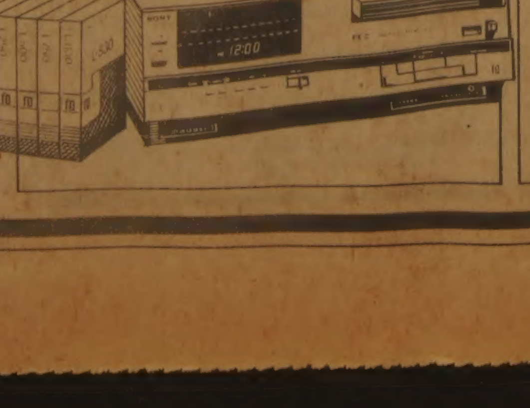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BETAMAX



여성이 꾸민 독자의 광장

편집자註

본지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대화의 광장으로 〈독자의 페이지〉를 신설한 이후 편집국에는 연일 독자투고가 각지에서 쇄도하고 있읍니다.

이를 간추려 9일자판에는 몬트리얼, 위니펙, 런던, 에드몬톤등 4개 도시에서 온 여성투고만을 모아 이색적으로 여성독자 페이지를 시도해 보았읍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여성들을 위한 지면을 되도록 늘릴 계획입니다. 많은 여성독자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코스모스 심은건 다름 아니라"

〈몬트리얼〉

유정순

우리집 정원의 코스모스는 한국 철뚝가에 피는 것처럼 가을에 피지 않고, 한여름부터 희고 분홍의 꽃을 피워, 가냘프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풍겨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유정순씨는 총연합회 회장인 오기송박사의 부인임.

여성 가정

꽃과 수목을 사랑하고, 그이는 가을이면 코스모스 씨를 열심히 모아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나 친지들에게 나눠주면서 잘 가꾸어 "한국의 정취를 맛보시라"고 하며, "우리가 옮겨온 이 땅에 코스모스를 담뿍심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이곳에 심어봅시다"고 권한다.

인간적으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그이의 생활태도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언제나 낙관적인 면을 바라보고 사는 편이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그가 지닌 끈기인 것 같다.

그는 언제나 시간을 아껴쓰고, 자기자신의 즐거움에는 더욱 인색하다. 남들이 치는 골프도, 영화감상도, 심지어는 파티에 나가는 것 조차 시간이 모자란 그이에게는 단축이 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딱딱하고, 어떤이가 볼 때는 융통성없이 일, 일에만 몰려 살아온 셈이다.

이민일세로서 후세에게 길을 닦아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잠도 아끼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이 모든 노력과 헌신들이 과연 보람있게 받아들여졌는가? 몇번이고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

"오동나무 심은 전 다름 아니라 시원한 맛 은근히 보장이리니, 야삼경 아닌 비가 잎에 질 때면, 소리 소리 이 간장 녹여 내나니"

이조말 어떤 여류시인의 읊은 시가 계속 나의 귓전을 때린다.

"코스모스 심은 전 다름 아니라"— 이땅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심어 같이 즐기려한 것인데, 현실은 너무 기대와 멀고 서글프기만 하다.

같이 손잡고 일해야 할 사람이 물고 뜯고 일이 안되게끔 갖은 수단을 다하여 훼방을 놓는다.

수고한다는 말 대신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단체에서 자기들만 사랑해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남이 대접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보기 싫어서 기어코 끌어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떤 단체가 잘되어 가는 면보다는 험을 잡아 꺼내서 짓밟아야만 시원하다.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일이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키가 크면 너무 크다, 작으면 난장이 같다, 친절히 굴면 편애를 한다, 좀 멀리하면 냉정하다, 솔직하면 입이 빠르다, 겸손히 굴면 비굴하다 등등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민생활에 말도 설고, 물정에도 설어 누구에게나 다쳐오는 좌절감은 크고 작은 것이 차이가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겪는 고충이다. 이런 좌절감을 분출시키는 곳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교회이고, 한인단체이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찍어뜨리는 것이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고, 성공했다는 위치에 선 사람을 짓밟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열등감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코스모스 심은 전 다름 아니라"가냘프나마 모자란 힘으로 한국을 아름답게 심어보고자 했던 희망에서였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바쳤던 사랑과 정성이 하룻밤 모진비에 몽땅 넘어지는 비참한 경험을 할 때 이 모든 열과 성의를 헛된데 쏟은 것이었던가 하는 의심이 새록 새록나는 것이다.

자기들의 고집이 관통이 안 될때에 모략과 중상까지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당하는 사람은 수많은 밤을 지새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아!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래야만 되는가? 비애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아닌 밤중에 내리는 빗속에 우리는 떨어야 한다.

아! 그러나 우리집 정원의 코스모스는 이해도 아름답게 피어 우리에게 한아름 즐거움을 안겨준다. 씨를 다시 안 뿌려도 저절로 떨어진 씨 속에서 새 생명은 계속 꽃피는 것이라. 그 잎에는 벌레가 끼지 못한다.

푸르디 푸른 안개와 같은 잎속에서 희고 분홍의 청초한 꽃은 명년에도 필 것이다. 씨 뿌리지 않아도 혼자 뿌려지듯이 우리가 한번 애써 가꾸고자 열과 성의를 다한 곳에서 2세들이, 3세들이 피어나와서 아름다운 꽃밭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명년에도 잊지 않고 코스모스를 심을 것이다.

가을의 끝에 서서

〈위니펙〉

이옥화

◆이옥화

1년 남짓 살아온 아파트를 옮기느라, 짐을 꾸리다 불현듯 일손을 멈추고 밖을 보니 때늦은 빗줄기가 제법 세차다. 한 여름날의 햇살 속에서 가을의 설렘임을 감지하였듯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따스함은 더욱 그리워 질테지…

가을은 누구에게나 미소짓게 하는 여유가 있어서 좋아. 그래서 가슴을 열고 바라볼라치면 그것들은 나에게 가까운 이웃이 되어 한걸음 성큼 다가서 준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산다는 것에 진정한 애착을 못가지는 무책임도, 그래서 존재에 값는 나에게도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생각케 하는 것도 가을이다.

이제 강물은 은빛 꼬리를 사리고, 두꺼운 얼음장 밑에서 포근한 동면의 속삭거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지상의 축복의 은혜를 내년의 푸르름으로 대신 기약하며, 겸손히 헐벗고 나선 가로수의 겸양앞에 우리는 무얼 준비할까?

신문에 조그마한 잡문이 기재되고 나서 일년이 넘은 지금까지 "선생님"이란 경어를 써서 여러통의 편지를 보내주는 젊은 학생 한명이 있다.

이국에의 무한한 동경에 꿈을 품은 청년, 현실보다는 미래에 더욱 기대를 건다는 청년, 소식이 오고 가면서 처음 보였던 그 허황함이 많이도 가셔진 듯한 그 어리숙함에 절로 미소짓게 되는 청년이다.

궁금증도 무척이나 많은 청년이라, 잡다한 나의 일상사가 궁금타가도 인생의 대가나 현인들에게 조차도 영원한 숙제일 수 밖에 없는 삶의 의미까지를 나에게서 구하려드니 가끔은 당혹감도 느껴진다.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엔 죽어도 좋다」는 그 흐르는 물과 같이 무심한 정신의 경지를 나같은 아녀자가 어찌 알까마는 그 학생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니 딱하다.

한국에서 왜곡스레 알 수 있었던 지상의 천국 캐나다!

그토록 무식할 수 있었음에 차라리 슬퍼야 했던 오묘에 대한 경악감과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바라보았던 그 많은 절망감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아래 한치의 틈에도 지독히 인색한 편견의 사회. 이것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이겠으나 모든 것이 상이한, 그러나 장차는 나의 사회로 인식되어져야 할 이곳에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성급하게도 의미나 목적까지를 갖고자 했음은 고국을 떠나오면서 무조건하고 품었던 권의의식 탓일게다.

산이다, 바다다, 모두 떠나던 원색의 계절에 차라리 창을 닫은 내 젊음의 한 순간이라도 허락되어 질 수 있었음은 어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오만도 있었던 까닭에….

하물며 일상의 기쁨이나 토착성의 나태에 만족하기에는 인생이 짧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과감하게 일상에서 떨치고 싶은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연민이나 기만에서, 혹은 허실에서….

허락된다면 하찮은 감정쯤은 무시하고 싶었으며, 나는 어느새 세상을 더 깊게,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할 연령에 서 있음도 알았다.

무한한 가능성의 사회에서 넓은 세계속의 첨단인 빠른 회전에서 내가 외토왔다면 보람이 없었던 탓일게다. 나에게 허용된 좁은 공간과 한정된 생활은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시간이 가니 더욱 연연해지는 고국과의 거리감에 향수는 애상의 감정을 안겨준다.

딱딱한 규칙의 일상에서, 피곤한 마음의 질식함에서, 때로는 어디든 탈피해 조금은 게으르고 싶다는 반감조차 가지나 자신의 극기나 금기없이 우리 어찌 자신의 실수앞에 솔직히 시인되어지랴.

자신에의 충실에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자기자신과의 투쟁의 한 계점이지 타인의 척도가 아닌 까닭에….

가을의 끝에 서서 이 가을이 주는 넉넉한 풍요로움 속에서 나는 내일도 나의 일에, 사람의 세계에 애정을 던지겠다.

◆"엄마 안아 주었어요", "키스는 했나요", "엄마들 파업"등의 구호를 내걸고 데모를 벌이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스미스필드 주부들. 주부들은 남편들에게 항의, 3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설겆이, 집안청소, 요리등을 거부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

〈런던〉

한은실

이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아름다움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본능적으로 그 욕구는 강렬하다.

나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 예외는 아니어서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개인이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의 양상은 달라지는것 같다.

나의 경우, 어릴때의, 소녀때의, 숙녀때의, 신혼때의, 사춘기의 자녀를 둔 엄마로서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계속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릴때는 나의 어머니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 즉 교회 주일학교 여선생님이라든지, 국민학교때 늘 웃던 여선생님같은 분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소녀시절에는 얼굴이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가진 친구가, 여고때는 얌전하고 고상해 보이는 친구가, 대학시절에는 늘씬한 팔등신에다 미모를 갖춘 친구가 부럽도록 아름다와 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학교 졸업후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관념은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아름다움, 특히 영혼의 아름다움에 눈이 떠진 것이다. 그냥 보기에 고운 손보다는 부지런히 일해서 거칠어진 어느 온화한 부인의 투박한 손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름투성이 이지만 애정과 부드러움이 넘치는 얼굴에서, 화려하거나 멋있는 옷차림에서 보다는 소박하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에서, 교양있어 보이는 말씨나 태도에서 보다는 알찬 내용의 대화나 숨길 수 없이 풍겨나오는 진실한 행동에서 향기로움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다.

지금 나의 눈에 비치는 아름다운 사람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기도하는 어린이, 화를 발칵내고는 곧 이내 "엄마, 잘못했어요, 나 좋은 아이되겠어요" 사과하는 사랑스런 딸의 모습, 경연대회에서 낙선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친구옆으로 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네고 있는 어느 입선한 학생, 지겹도록 같은 말을 여러번 반복하며 넋두리를 하고 있는 어느 여인의 하소연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은 후, 적절한 말로 처방해 주고는 눈물로 기도해 주는 어느 목사님, 차별을 두지 않고 어느 아이에게나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며, 성실과 인내로 지도하는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 철없는 어린애 마냥 하루에 열두번도 더 변덕을 부리시는 할머니를 한결같이 공양하며 잘 돌보시던 우리 시어머님, 결점투성이인 나를 언제나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어디서나 나에 대한 칭찬만 말해주는 남편, 자기 자녀에게 애정을 쏟을 뿐 아니라, 남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 사랑해 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던 미세스X, 남의 칭찬만 말할 줄 알았지, 자기의 자랑이나, 남의 허물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느 권사님, 비판의 눈보다는 이해의 눈으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고, 만날 때마다 항상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오는 어느 간호원, 소외당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에게 늘 친구가 되어 주는 어느 사업가, 부지런히 집 안팎을 정돈하고,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봉사하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남을 돕고, 자기 자신에게도 충실하던 너무나 모범적인 어느 의사의 부인…, 더 나열하려면 끝없이 길어질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금 눈에 비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를 지금의 자기 태로 두지 않고, 좋은 책을 통하여, 혹은 교회를 통하여 쉼없이 생각하며 반성하며, 고쳐가며, 좀 더 나은 자기를 형성해 가는 여러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니 내 주위엔 온통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찬 게 아닌가!

그러나 나도 아름다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닮아갈게 틀림없다.

은실이, 너는 정녕 복된 사람이어라.

벗에게

〈에드몬톤〉

손영순

여보!

당신이 계신 곳에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고, 단둘이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들, 그리고 못다한 얘기도 오손도손 나누고 싶었지만, 여기 오는 길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듯 늦었다오. 오늘도 다 가고 나면 또 한해, 그러다 보면 영영 와보지도 못할까봐,

「"성", Sherwood park, 이 가게에서 가깝죠?」

「왜?」

「은주엄마 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오늘이 일년되는 날인데….」

「가려면 빨리 나와.」

밖으로 나가시는 아빠에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등뒤에 보낸 말인데 순순히 대답하길래 난 단숨에 외투만 걸치고 당신을 찾아왔다오.

오늘 따라 유난히도 화사한 햇빛이 순백색 비단 위로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이 티없이 깨끗해 난 마치 범접하지 못할 영역을 침범한 무례한 같구려.

더군다나 나무잎새 소리도,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바람의 멜로디도 더우기나 생동의 맥박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같아서 엄숙해지는 나의 자세. 그러나 곳곳에 난 발자국들과 듬성 듬성 놓여있는 예쁜 화환들, 그리고 여기저기에 흰 눈가루를 이고 눈부신 듯 서있는 플라스틱꽃들을 보았을 때 이곳도 인간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분이구나 생각되었다오.

하나,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눈앞에 두고도 당신 집을 못찾다니. 새하얗게 쌓인 눈위에 번호가 새겨진 막대기들이 줄줄이 서있고, 어느 것이 당신 집인지 종잡을 수 없어 망설여지기만 하니 당신 친구 하나 정말 잘두었구려!

일요일 늦은 오후라, 창문으로 넘겨다본 관리인실도 전화기만 댕그란히 앉아있고, 더군다나 예배실조차 엄숙한 정적만 맴돌고 있으니 이 딱함을 어이하리.

당신이 애지중지 사랑하던 딸들이랑, 애뜻하게 사랑하던 당신의 "여보", 그들의 발자국이 없는 것을 보니 교회 갔다 늦게나 오려나 보오.

내 심연 깊숙이 통곡이 소리 죽이는데 난 멍청히 허공을 향해 당신을 애타게 부른다오. 당신을 찾으려 당신처럼 고운 눈위에 속세의 발자국을 함부로 남기다간 행여나 당신이 다칠세라, 선불리 걷지도 못한다오.

은주엄마! 차라리 옛날처럼 날 불러보구려. 비단결처럼 고운 당신의 마음이라도 전해져 찾을 수 있을텐데, 지척에 두고도 왜 말이 없소?

성의가 없었던 날 책망하는 것이오? 그렇담 침묵보다 꾸지람이라도 한다면 자책에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이 차라리 조금은 덜어질텐데….

「의사가 온다는데 스잔엄마 어디 갔어?」 당신은 예견이나 한듯 아빠랑 나를 몹시 찾았다면서.

그날 아침 당신을 보았을 때 직감으로 오래 못살 것 같아 사놓은 배추 서둘러 김장하느라 자리를 비웠더니 기다리지 않고 그 사이에 가다니, 무심한 사람, 어이 발길이 떨어지던가?

그때 당신의 곁에서 그 따뜻한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했으니 당신 위해 얻었던 무급휴가는 한낱 물거품이지 않았던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3년전이구려, 처음 유방암이란 진단이 내리고, 오른쪽 유방을 깊숙이 도려내었을 때, 강인한 투병정신으로 회복이 빨라 의료진까지 탄복하던 그때, 내겐 실날같은 의혹이 마음 한구석에 어쩔 수 없이 자리잡고 있었다오.

만일 단 한개의 세포라도 임파선으로 침범되었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었다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신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폈지만 기적은 우리 앞에 영영 없었구려.

첫수술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난 당신더러 복직하라고 권했었지? 혼자 어두커니 집에 있으면 온갖 잡념에 괴로워할 것같아. 차라리 분주하게 생활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것같아서였다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남편을 더 많이 생각했었지?

「그인 허약한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 몸이 불편해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니 미안해 죽겠어.」

「내가 늙고 먹으니 마치 쇠가루를 갉아먹는 것같아.」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자 복직했던 당신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쉬더니 어느 틈에 또다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소?

당신이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이득이 차라리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피곤에 젖어있는 당신의 목소리를 전화기 이편에서 들으면서도 또한 서글픔이 뭉클하게 날 휩쓸곤 했지만, 애써 명랑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오.

진통제를 복용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게끔 일한다는 당신에게 "무리 말고 천천히 하지 그래" 이말 한마디, 그리고 그만두란 말 하지 않았는데 날 무척 차가운 사람으로 생각했겠구려, 난 진정코 당신을 위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오.

그러다가 일년, 이년, 그리고 또한 삼년, 그세월의 흐름 속에 "난 여기저기 자꾸만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지적하는 곳마다 수십장씩 X-Ray는 찍으니 웬일일까?"하고 물어왔을 때 숨막히는 절망으로 한참동안 할말을 찾지 못했다오. 그날, 당신을 배웅하고 나서 신에 대한 회의에 빠져 몸부림쳤다오.

내가 마음 속으로 가장 소중하게 아끼던 사람, 사십하고도 반허리를 돌아 또 한해가 문턱을 넘으려는 이 나이에 힘들게 겨우 찾았던 진실한 내 친구.

난 지금 당신 곁에 외롭게 서서 서러움을 삼키며 독백한다오. 당신의 고귀한 기품, 넓은 도량, 무거운 입, 평범하게 사는 가정주부들, 학교에서 배운 지식 쓸모 있던가? 더군다나 이곳 초기의 이민사회에서 말이오.

요란하게 내세우는 집안과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까치를 추는 인형보다 세련미 없는 투박한 투가리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맛에 비길 수 있는 당신 내면의 아름다움.

지금부터 천만년을 더 산들 당신의 인품을 내가 따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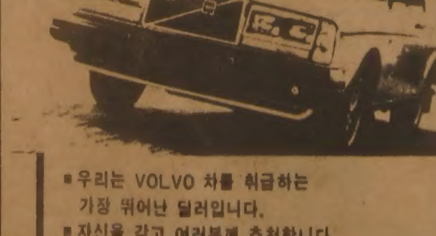
나뿐만 아니구려, 당신을 아는 이곳 사람들, 두고두고 당신을 잊지 못하니 말없이 심은 귀한 열매이리라.

여보 은주엄마! 이제 멀지않아 "할미"소리 듣겠구려!

당신의 큰딸이 결혼하고, 또 아기를 가졌으니 나보다 먼저 할머니가 되는구려.

"애끼 이사람, 언니를 젖혀두고 고~약하게 할머니 소리 먼저 들으려 하나!"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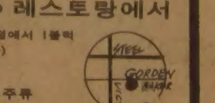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왜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 7664 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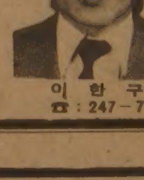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VICTORIA PK on STEE 교차점에서 1블럭 남쪽 403 GORDON BAKER RD.)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8 GORDON BAKER RD.
498-1300, 496-2196
MACHO레스토랑 이 해 창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 · 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자율淨化 下位職 확산

全대통령、司正會議지시 은폐된 社會非理·폐습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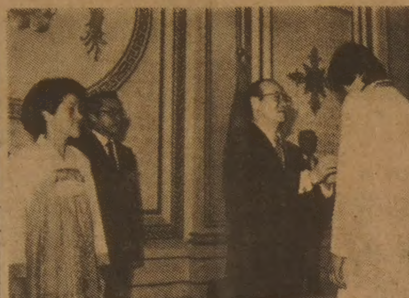
〃意識개혁 자발적參與 유도 청탁등 再發 高下막론嚴斷〃

全斗煥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의 司正활동은 舊시대의 非理, 폐습은 물론 새로운부조리의 예방과 是正에 倍前의 각오와 결의로 더욱 과감히 대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새해에는 자율淨化풍토의 底邊확산과 의식개혁운동의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국가司正활동을 성숙, 內實化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금년도제4차司正협의회 개최에 즈음, 이같이 지시하고 내년도司正업무추진기본指針으로▲공직사회의 자율淨化목표를 高位職중심에서 下位職,정부代行기관등 底邊으로 점차확산시켜나가고▲협회·조합의 非理와 기업간 納品관련부조리등 은폐된사회적 非理·폐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있는 자율적 刷新의 계기마련▲의식개혁은 3大否定심리 추방을 중심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나가는한편 국민각자의 구체적실천에 최대의역점을두어 활성화시켜나가며▲청탁, 利權개입등 과거와같은 부정·非理가 再發할때는 사회적신분과 지위高下를막론하고 嚴斷한것등 4개항을 시달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長·短期계획에 의한 조직적, 체계적인 司正활동과 3大부정심리추방을 통한 의식개혁의 본격적 추진등으로 우리 사회각분야에 현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기반이 착실히 다져져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성과와 분위기를 사회 구석 구석까지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5공화국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새로운 부조리 예방과 是正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쉬운법이므로 결연한 의지로 자기是正노력에 인색치 말아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내외가 청와대에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임원들을 접견하고있다.

〃體力·技倆 세계水準되도록〃 全대통령、亞洲競技선수에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7일 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영빈관에서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각종 메달을 차지한 선수1백85명과 임원 75명등 2백60명(여자70명)을 접견, 이중 2백49명에게 체육훈장과 체육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금일봉을준뒤 오찬을 베풀며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대회등 스포츠祭典을 주최하게된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체육과 競技力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다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므로 선수와 체육인 여러분은 오늘의 성과에 放心하지말고 힘과 기술을 기르기위한 더욱 강도높은 훈련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아직도 많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과 技倆이 세계최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국민 모두가 체육의 생활화에 더욱힘쓰는 한편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다 튼튼하고 씩씩하게 성장할수있도록 倍前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과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다.

어제 올4次 司正會議

請託행위 暗行點檢 강화

기업納品·下請부조리도 追放

司正협의회는 7일상오 서울三淸洞 南北대화사무국 회의실에서 올들어마지막인 제4차 전체회의를열고 지난2년간의 제1단계 司正활동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한편 全대통령의 司正활동 기본指針을 이행하기위한 실천계획을 협의, 이를 강력히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許三守청와대 司正수석비서관주재로 열린 이날회의는 국민들이 司正성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자율淨化를 下位職·정부대행기관등 底邊으로 확산, 定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暗行점검활동을 강화, 위반자는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엄단하며 청탁배격을 강력히 이행하며 [illegible] 기업간 納品, 下請등과관련한 경제계의 부조리를 추방, [illegible] 사회淨化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식료품의 [illegible] 가짜, 불량품을 추방하고 [illegible] 밀화된 [illegible] 외제선호등 사치·낭비풍조를 퇴치하되 사회淨化 [illegible]

◇자율淨化기반확산 ▲部 [illegible]

◇청탁배격 ▲청탁보고제 [illegible] ▲弘報강화

◇새로운제도·환경定着 [illegible]

◇의식개혁운동활성화 [illegible]

秋穀50만섬 早期수매

政府·民正검토

民正黨은 내년1월에 수매키로돼있는 1백만섬중 50만섬을 年內에 早期收買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6일 農水産部와 이문제를 협의한바있는 民正黨은 곧 다시 黨政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7일 秋穀수매에관해 내년초 수매분을 앞당기는방안과 아울러 農協의 구매계획을 早期집행하는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측은 年末通貨증가율을 30%線에서 억제해야한다는점에서 難色을 표하고 있기때문에 通貨증가율 억제목표안에서 수매량을 늘리고 [illegible] 상환연기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政治議案처리 절충 또失敗

[illegible]

와인버거 美國防 곧 中共방문할듯

[illegible]

金總理, 콜롬비아着

【보고타=河長春특파원】[illegible]

大企業 은행株所有 8%로

財務委 합의 上限초과분 3년간 處分유예

국회재무위 금융관계법심사 11人小委(위원장鄭順德의원)는 7일하오 그동안 與野가 異見을 보여왔던 銀行法개정안중 大株主의 은행주식소유 上限線을 10%(정부案)에서 8%로 내리고 초과소유持分에 대한 처분유예기간을 정부案대로 3년으로 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小委는 또 「국민은행법 개정안」중 국민은행의 업무취급에관한 정부案의 규정중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인수 및 보증」부분을 「國公債 및 국민은행의 융자대상이되는 소규모기업이 발행하는주식및 社債」로 유가증권업무 취급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案대로 통과시켰다.

小委는 또 신용관리기금법안은 계류시키기로 의견접근 [illegible]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7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在싱가포르 한인회 美貨1만4백弗

▲在싱가포르 한인회 [illegible]

社會團體 韓星協同會 1백37만원

[illegible]

◇정원상씨

◇鄭基碩씨

洪陵갈비집 本店 50만원

〃 청량리分店 50만원

在네덜란드同胞 13만원

포천군 의사회 13만원

[illegible]

한국新春文藝 11일마감

詩·소설·時調·隨筆·동화·戲曲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값내리기 경쟁이 붙었답니다…

地平線

[illegibl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서울공고
연말파티

아래와 같이 동문 연말파티를 가지려고 하오니 동문께서는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 소 : 372 SUMACH ST. TOR. ONT.
한천석 동문댁
☎ : 921-0624(B)
961-4634(R)
일 시 : 1982년12월17일(금) 오후 8 시부터
회 비 : 없음
※다채로운 여흥 프로와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

서울공고
동문회

T.V. JAPAN
각종일본비데오테입렌트
T.V.(도시바·SONY)
SALES & SERVICE

• Sony 비데오 카메라
HVC 2200
Sale $989.00
• Sony VTR
Model 5000
Sale $825.00
Model 5101
Sale $989.00
• 도시바 VTR
Model 9200
Sale $819.00
• Sony 20" Color TV
Model 1913
Sale $649.00
• 도시바 20" Color TV
모델 910
Sale $539

미도파백화점 BLOOR ST. BORDEN ST.
509 Bloor st. W. at Borden St.
☎ : 922-6444
12 MACKINAC CRES.
☎ : 439-5416
대표 TOYO NAITO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출판위원회 번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에 제정, 채택된 스코트랜드교회의 공개신앙고백 개혁신앙의 정수, 전통적 기독교신앙의 근간, 성경전체가 가르치는 바 총개요
● 알기쉬운 우리말 번역, 편리하게 배열되고 본문과 정확히 대조된 성경주석
● 간편한 포켓북 사이즈, 총32페이지
● 저렴한 가격 $3.00(송료포함)

다음 장소에서 절찬 판매중!!
한밭식품, 서울식품, 한국식품(동부)
삼복식품, 종교서관

우편 구입하실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Money Order 또는 Check 동봉)하십시요.
Toronto Reformed Presbyterian Chuch
P.O. Box 2603, STATION "F"
Scarborough, Ontario Canada, M1N 3P2
전화문의 : (416)498-0241 · (416)492-9889

토론토개혁장로교회
예배시간 : 2 : 00PM
예배장소 : 1355 Warden Ave. (South of Ellesmere Rd.)

미테랑 佛軍기구 축소계획
軍장성들 반발
士氣·戰力약화등 우려

【파리AP=聯】프랑스軍고위장성들은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의 현사회당정부가 1984~88년사이 軍기구를 17%축소, 개편하려는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親사회당계 일간신문 르·마텡은 이날『軍최고수뇌부의 경고』란 제하의 1면 머릿기사에서 장들로 내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9일자로 작성, 장두·라사즈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대외비문서사본을 공개하면서 해·공군총장이 작성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또다른 문서사본도 수일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제의 문서사본은 정부측의 軍개편계획이 육군3만, 공군7천, 해군5천등 모두 4만2천명의 병력감축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사본은 5개년 軍개편계획기간중 육군병력 1만3천명이 감축되고 예산이 백10억프랑(15억달러) 삭감될 경우 육군은 사기저하와 장비노후화로 인해 전력약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人工심장이식 환자 두번째手術 성공적

【솔트레이크시티UPI=聯】세계최초의 인공심장이식 수술환자인 미국의 전직 치과의사 바니·클라크씨(61)는 2번째수술을 받은지 이틀뒤인 5일 침상에 똑바로 앉아 침대가장자리에서 다리를 흔드는등 기력을 회복하기위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치의들이 6일 말했다.

5일하오 침대가장자리에 똑바로앉아 약5분동안 다리를 흔들어본 클라크씨는『곧바로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싶지만 아직은 그렇게할수 없을것같다』고 말했다.

환자가 입원해있는 유타대학 메디컬센터의 대변인 체스·피터슨박사는 환자의 용태가 아주 좋다면서 『이같은 운동이 힘드는 일인데도 환자는 재미있게 해내고있는것같다』고 말하고 『환자가 지금은 유동식을섭취하고있지만 원한다면 부드러운 음식정도는 먹을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제의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클라크씨는 폐에 생긴 4~5개의 작은 상처를 꿰매기위해 지난4일 재수술을 받았었다.

아르헨勞動者 총파업 단행
賃金인상·人權침해 중지등 요구

【부에노스아이레스UPI=聯】수백만명의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6일 임금인상과 당국의 인권침해사례중지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파업을 단행, 대중교통과 각종 공장을 마비시켰다.

勞組지도자들은 당국의 파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총파업에는 1천만 노동조합원들의 90%가 참가했다고 말했다.

배차노조위원장 로베르토·가르시아는『이 파업으로 군사정부는 완전히 고립됐으며 우리가 현정부와 어떤 일도 같이하기를 원치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사정부는 현체제가 더이상 지속될수없다는 점과 그들이 당장 권좌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및 택시들 밀가수송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교통이 마비됐으며 수도의 전화일도 겨우기간요원들만 남아 일을 맡아 문제를 일으켰고 한편 식당과 상점및 영화관들도 종사자들이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문을 닫았다.

蘇、새미사일生産위협
우스티노프國防 美MX배치 계획 경고

【모스크바AP·UPI=聯】소련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는 6일 만약 미국이 MX미사일배치를 강행한다면 소련도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하겠다고 위협했다.

우스티노프는 또 유럽에서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하기위한 레이건대통령의『제로옵션』(零의선택)제안이 미국은 전진배치핵운반체제를 유지한채 소련의 SS20미사일을 제거하려는 계산에서나온 것이라고 주장, 이를 거부했다.

우스티노프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수년동안 소련지도자의 발언중 가장 강경한것중의 하나로서 군비문제및對美관계에 관한 소련의 강경 자세를 시사한것으로보인다.

우스티노프는 이날 관영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만약 美지도층이 MX미사일배치를 개시함으로써 소련에 도전해 온다면 그때는 소련도 MX미사일과 같은수준의 새로운 ICBM을 배치, 이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소련의 새로운 ICBM은 어느모로보나 MX미사일에 뒤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우스티노프는 그러나 소련이 새로운 ICBM을 이미 개발했는지, 아니면 현재 개발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AP·UPI=聯】소련은비준을 받지않고있는 제2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I)이 허용하고있는 신형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미국무성이 6일 말했다.

앨런·롬버그국무성부대변인은『우리는 피스키퍼(평화수호자·MX미사일)의목적과 특징을 공개했으나 소련은 그들의 신형미사일의목적과 제원을 밝히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아랍聯대표단 中共着

【北京AP=聯】지난9월 모로코의 페즈 아랍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8개항 中東平和案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위해 유엔 安保理5개상임이사국을 순방중인 아랍연맹대표단은 소련방문에 이어 중공을 방문하기위해 5일 北京에 도착, 中共외상 吳學謙의 영접을 받았다.

후세인 요르단 國王이 이끄는 이 아랍연맹「7人위원회」대표단은 48시간동안 北京에 머물면서 중공의 실권자 鄧小平, 수상 趙紫陽, 黨총서기 胡耀邦등 중공의 黨政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갖고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을 주된내용으로하는 아랍 中東평화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슐츠 영접받는 파키스탄大統領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이 6일 美國방문차 앤드루즈 美공군기지에 도착한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을 영접하고있다. 【워싱턴6日UPI電送=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 [illegible]-2361

北韓 外交사절단 파나마政府 추방

【키토AP=聯】4명의 북한외교사절단이 파나마에서 추방된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에콰도르의 엘 코메르시오紙는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원인 지종익이 이끄는 북한외교사절단이 파나마로부터 추방된뒤 이날 에콰도르의 키토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들이 파나마에서 추방된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國史學者·양성위해 專攻학생 증원검토

정부는 民族史觀정립을 위한 업무추진계획의 일환으로 國史學者를 양성키위해 대학및 대학원의「國史專攻學科」학생정원을 증원할것을 검토중이다.

6일 民正黨舍에서 열린 民正黨民族史觀정립特委(위원장 李鍾贊)에서 鄭泰秀문교차관은「현재 7개대학 3백80명에 불과한 國史학과졸업정원(86년)을 84학년도부터 증원하고 국사학과의증설도 검토중에 있다.

北韓、武器수출
外貨부족 메우려 阿·中東등

【東京=宋孝彬特派員】북한은 심각한 외화부족을 메우기위해 中東, 아프리카등지에 무기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 수입한 화물트럭을 개조해 재수출하고 있다고 일본의 週刊寶石誌가 최근호에서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이잡지는 북한이 이란과 레바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등지에 많은무기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잡지는 일본에서 수출된 이스즈社의 TWD25화물트럭이 지난7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外信에 촬영된 화물트럭과 같은 종류로 판명됐다고 밝히고 일본의 비군사용자로 북한에 수출된 화물트럭이 군사용으로 개조나 변조돼 中東지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잡지는 올해 3천5백대 가량의 화물트럭이 북한에수출될 예정아래 지난9~10월사이에 요코하마(橫濱)항에서 북한화물선 東海號등 4척에 이미 7백대가 선적돼 元山, 南浦港등으로 갔다고 밝혔다.

日·蘇각료회담 3년만에 再開
내년 어로협정계기

【東京AP=聯】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래 근3년간 단절돼온 日蘇각료회담이 내년초 소련어업상 블라디미르·카멘체프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재개된다.

일본의 共同통신은 6일 카멘체프가 내년2월 가네꼬·이와조(金子岩三)일본농수산상과 양국어로협정에 관한 회담을 갖기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3월부터 적용 국제海上안전협약

정부는「海上에서의 人命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議定書에 대한 加入書를 지난2일자로 국제海事기구사무총장에게 기탁, 내년3월2일부터 이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발효하게된다고 7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大型선박 특히 油槽船의 海難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78년채택된이의정서는 선박의 안전시설및 설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안전航行을 도모하고 人命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있는데 한국이 이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들은 선박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한편 우리 선박들이 외국항구의出入港時에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됐다.

이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이의정서의 32번째 당사국이된다.

人事異動

문화방송 ▲金基柱 단당이사대우(前보도부문이사대우) ▲李樂鎔 보도부문이사대우(前동경지사장) ▲邢 前LA지사장 이상7일 이사회결정 ▲李相尙 감사재임 이상7일 주주총회 결정

유태인·PLO의 內紛
求心點잃은「쫓은者」와「쫓긴者」
유태人「이」移住끊고「反민족운동」
PLO 左派서 聯邦案 반발심각

상극민족인 유태인과 팔레스타인들의 각각 정신적 지주인 시오니즘(유태민족주의)운동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과 PLO 베이루트철수라는 격동을 치른후 갈등과 내분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쫓은자와 쫓긴자 모두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오니즘운동의 [illegible]라고 할수있는 세계시오니스트회의 30차연례총회가 7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막을 올렸으나 그어느때보다도 내분에 휩쳐 시오니즘의 위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시오니즘으로 뭉쳐진 유태인단결의 가장 뚜렷한 증표라고 할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민수가 매년 수만명에 달하던 것이 올해는 9월말까지 고작 1만3천7백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 이주해 오던 유태인들이 뚝 끊기다시피했고 이스라엘대신에 유럽과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떠나는 유태인수는 30만을 넘어서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시온니즘운동 관계자들은 2천여년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왔던 유태민족이최근들어 결혼등으로 다른민족에 동화되고있다고 말하고그런사람들이 세계유태인 조직을 좀먹고 있다고지적했다.

세계시오니스트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이후 서구에서 反유태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유태인사회도 이스라엘정부의 강경책으로 분열되고 있는데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西歐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이산유태인)사이에는 그들이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 유태인으로서 철저하게 생활하면 그만이지 이스라엘로 이주하거나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보낼 아무런 이유가없다는 소위「디아스포라의 합리화」현상이 일고 있다.

연일 이스라엘TV광고들은『관심을갖자』라고세계시오니스트대회에 주위를 기울여 줄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것같다.

이번대회에는 세계약30개국의 1백40만유태인유권자가 뽑은 6백36명의대의원들이 참석하고 있으나 개막3일전까지만해도 아무도 몇명의 대의원이 참석할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회관계자는 개탄했다.

많은 이스라엘국민들은 이 대회의 목적은 유태인국가를 세우는것이 었던만큼 이제는 해체되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한편 베이루트에서 쫓겨난 PLO는 각국으로 분산되면서 아라파트의장이 이끄는온건파와 親시리아계의 급진좌파로 양분되는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크게 8개파벌로 나눠져 있는 PLO는 특히 미국이 제시한 요르단·팔레스타인연방안을놓고 심각한 내분에휩싸여 있다.

PLO내 급진좌익조직및 친시리아단체들은후세인요르단왕과 대화를 계속하면서레이건의 중동평화안에 다소긍정적인면을 보이고있는 아라파트의장에등을돌리고 있다.

팔레스타인해방군(PLA)등 급진좌익세력들은 레이건의 요르단-팔레스타인연방구상은 팔레스타인독립국가 창설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아라파트의장이 요르단쪽으로 기울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사드시리아 대통령과 아라파트사이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관측통들은 이같은 PLO분열위기는 PLO조직의 80%를장악하고있는 아라파트가 미국의양보를 받아내기위해 꾸며낸 술책이라고말하고있으나 어쨌든 아사드시리아대통령과 아라파트사이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싸늘함은 결국 PLO에게 밝은면으로 평가될수는 없다.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레바논전쟁후 분열을빚고 있는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崔海雲기자】

메아리
秘密

『저는 이지역 담당 경찰관입니다』 이런 인삿말이 적힌 쪽지를, 아마 전국의 家口主가 지난 초여름에 받았을줄 안다. 이름하여「호주연락카드」。

宣傳사건뒤 주민들의 신고·연락망을 정비하겠다던 내무부 방침이 나타난 것이다.

쪽지의 인삿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 카드는 지리안내, 범죄예방, 비상시 연락등 대민봉사에 필요하여 작성코자하오니 기록후 파출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야할 쪽지의 空欄은 꽤 많다. 호주의 이름과 주소·본적에다 原籍·越南日字·本貫, 집이 내집인지 셋집인지의 여부와 전주소 등등…。개인별 기재사항도 여럿이다. 이름(漢名·異名)·주민등록번호·직업(勤務處)·학력(出身校)·경력·병역관계·신체이상·비고등등…. 이런 내용을 동거인·가정부·고용인·하숙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쪽지를 받고 조금 곤혹스러웠다. 겨우 가로8cm나 될직한 칸에 무슨 수로 학력·경력을 적는가. 그보다 旅券수속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을 적어 내라고 하는가. 어떤 근거로. 경찰은 이런것까지를 적어 달라 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僞名·異名에 신체이상까지 적어 내라니, 인삿말의「범죄예방」은 나를 범죄로부터 예방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저지를지도 모를 범죄를 걱정함일까.

적어도 쪽지에적힌 대로의 용도를 위해서라면, 空欄중 태반은 필요없는 것들이다. 더구나 그것들은 사사로운 일들.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도 있는 일에 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말하면,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따는 그렇다.

그것은 어떤 지인의 말투 그대로다.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읍니까』(蘇龍雲「秘密」)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대에 따라, 비밀아닌 것도 비밀이 된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꼭 숨길 일이 아니더라도, 「私」가 붙은 일이란 모두가 그렇다. 英語로 프라이버시란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헌법에서도 보장된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여, 하도 많은것을 적어내며 살아오는 백성들이라, 적어내는데는 벌써 면역이 되었다. 법에 정해진대로, 꼭 필요한 것만 적어내는 것일테니, 굳이 마다 할것은 없다. 그것을 접수하는 공무원에게는「守秘義務」가 있다니까, 쑥스러워 할것도없다.

그러나 그 신고내용— 이른바 個人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처리될 때의 사정은 다르다. 일단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는 버튼 하나로 쉬 열람할수가 있다. 낡은 데이터라고 창고에 퇴장되지도 않는다.

이럴때의 문제는 訓示的인 守秘규정만으로, 과연 나의 프라이버시가 온전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개인데이터를 가장 많이 집적한 컴퓨터는 경찰의 수사용이다. 2천5백만건의 주민등록 지문 말고도, 5백만건의 전과기록, 2백만건의 면허기록이 여기 들어있다. 더하여「情報」에 속하는 보고사항도 들어있을지 모른다.

이만한 데이터의 집적이 있어야 과학수사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데이터들은 불현듯「怪物」로 변할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 불리한 데이터가 불쑥 내 앞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 立件기록은 입력이 되고 무죄판결기록은 입력이 안되거나 2~3년 늦어지기도 한다(한국일보 10월14일字11면). 데이터가 잘못된줄 알고 고치려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조선일보11월12일字10면). 이 때문에 평생을 망칠지도 모른다.

金昌悅 <編輯委員>

더구나 이런 데이터가 어디까지 開放되어 있느냐는 더 큰문제다. 아마 경찰 내부 사람이라면 그 데이터에의 접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터이다. 경비전화로『거 金아무개 데이터 좀 빼줘』— 이런게 통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물론 그런건 杞憂라고 경찰은 말할 것이다. 컴퓨터·데이터는「수사목적」에만 쓴다는 內規를 들어서—。그러나「수사목적」이란 둘러대기 나름이다.

있어야 할것은 內規가 아니라 컴퓨터를 지키는 法이다.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쓰게하며, 개인이 자기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하는 立法조치가 필요하다. 엄중한 罰則도 있어야한다. 경찰컴퓨터는 물론, 稅務·은행, 기타 정부기관과 민간의 모든 컴퓨터가 마찬가지 규제대상이어야 한다.

컴퓨터가 있음으로해서, 우리는 데이터와 情報의 무서움을 새삼 절감하게된다. 여기에 남의「私」를 수월케 넘보는「無神經」마저 겹친다면, 우리는 한낮에 발가벗고 사는꼴이 다름없어진다. 그래서 앞서의 詩句는 詩情을 떠나서 더 절실하다.

人權주간에, 또 하나「人權의 敵」으로 20세기 文明의 利器를 추가해야하는 고통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상금5百萬弗…前妻 後妻도 함께

美國뉴저지州 뉴어크에사는 커티스·샤프씨(44)가 지난달30일 뉴욕州가 실시한 로토·컨테스트(일종의 카드놀이)에 당선, 상금으로 5백만달러를 받은뒤 이혼수속중인 前처(右)와 새부인이될 여인과함께 기쁜 표정을 짓고있다. 상금은 세사람이 분배하게 된다고. 【뉴욕7日UPI電送=聯】

海外토픽

殺人부른 취중농담
★銃쏘기實驗 저승行

미국 휴스턴에서는 최근두 술친구가 술집에서 취중농담을 주고받다가 서로를 권총으로 쏘아죽이는 이색적인사고가 발생.

해럴드·커클리(33)、제임즈·코울(55)두사람은 휴스턴시내의 한바에서『휴스턴에서는 살인을 범하기가쉽다』『상대방으로부터 총격을 받은사람은 죽기전에 상대방을 쏠수있다』는 말을주고받다가 이를 실행에 옮긴것.

즉 코울이「총탄이 나갈지 모르겠다」면서 권총을 빼는 순간 커클리가 발사를권유, 스스로 총을맞았고 이어 커클리가 자신의 권총을 빼내 코울을향해 총탄을 발사, 결국 두사람 모두 저승으로 갔다. 【휴스턴=UPI】

12년간 8百만희생
★방글라데시、自然災害로

지난1965년부터 1976년까지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방글라데시국민이무려 8백만명에 달했다고 술탄·마무드 방글라데시계엄부사령관이 최근공개했다.

마무드씨는 최근 다카에서 개막된 제3차 아시아『원거리감지』(태풍등 자연재해의 접근을 사전경고해주는위성감시)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은 엄청난 피해때문에 9천4백만 방글라데시국민은 원거리감지와 외계연구에 최우선적인 관심을두게됐다고 설명했다. 【다카=AP】

사르트르思想 害惡
★中共언론 理念저해경고

중공당이론지 紅旗와 청년團기관지 중국청년보는 최근 프랑스 철학자 故 장·폴·사르트르의『절대자유』개념이 일부 당간부와 청년들에게『나쁜 영향을 끼치고있다고 경고하고 사르트르 사상이 사회주의사회에 더이상 해악을 끼치기전에 일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紅旗와 중국청년보는 자본주의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 사르트르의『절대자유』사상을 일부 당간부들이생활지침으로삼고있다고 개탄했다. 【北京=AP】

記者의 눈
파리行 亡命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초기에『프랑스가 체제에 의해 박해받는 사람과 정치적 망명자의 天國이라는 자랑스런 옛전통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自由、平等、博愛를 기치로 내걸고 舊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대혁명 이래의 전통을 되살려 놓겠다는 의지였다.

미테랑의 이러한 약속이 취임 19개월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다.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은 南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反체제 백인 시인 브레이텐·브레이텐바크씨(43)를 형기만료전에 석방하고 그의 프랑스行을 허용했다.

南아프리카의 가장 저명한 정치범이었던 브레이텐바크씨는 미테랑 대통령의 끈질긴 막후교섭으로 석방된 것이다.

브레이텐바크씨는 南아프리카의 백인소수정권과 인종차별정책에항거하기위해 反체제활동을하던중 75년에 체포되어 복역중이었다.

지난 10월 쿠바의저명한 反체제시인 아르만도·발라다레스가 미테랑의 주선으로 자유의몸이되어 프랑스에 안긴지 2개월만의 잇단 慶事였다.

미테랑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정치철학및 청년시절의 체험과 깊은관계가 있는 것같다.

미테랑은 社會黨당수시절부터 가난한자와 박해받는자의 대변인임을 자처해왔고 그의 對外정책은 제3세계국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있다.

청년시절에는 나치에 대항하여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활약하기도했다.

미테랑은 反체제인사중에서도 특히 시인과 작가에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청소년시절부터 샤또브리앙을 탐독하고 앙드레·지드와 알베르·말로에 심취되었던 미테랑은 한때 문학도로 지망하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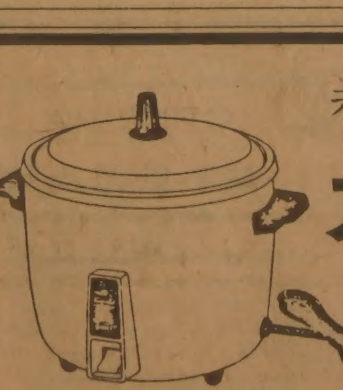
文才도 뛰어나 베스트셀러가된 수권의 저서를가지고있는 미테랑은 자신의취임식에 노벨상을 받기이전인 南美의 反체제작가 마르케스를 초대하기도했다.

세이송프랑스외상은『브레이텐바크씨와 발라다레스의 석방교섭은 앞으로있을 이와비슷한 교섭의 시작일뿐』이라고밝혀 미테랑이 반체제시인과 작가들을위해 활발한 교섭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테랑은 자신스스로가 권력자이면서도 또다른 힘에의해 탄압받고 박해받는 文客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것이다.

미테랑이 누리는 권력과 文客들을 박해하는자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李炳圭기자】

캐나다 전역에 걸친



자동보온밥솥 SANYO 경품판매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크리스마스의 이상적인 선물은 산요밥솥으로

지금 세일기간중에 구입하십시요.
결혼등의 어떤 예식을 위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 됩니다

- 기쁨을 주는 선물
- 실용적인 가격
- 튼튼하고 품질좋은 밥솥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E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bell ringers

October Draw Winners
JFCC-Toronto: Chiu Ying Kwan
JFCC-Montreal: Lam Muoi
Asian Foods-Vancouver: Fong Yee

大入고사 難易度 들쭉날쭉

標準化없이 주먹구구식 出題

得點분포 해마다 큰 變化

進學지도 混線·교육正常化 저해

우리나라의 대입학력고사는 난이도(難易度)에 대한 표준기준이없어 해마다 문제가 어렵다 쉽다 들쭉날쭉이다. 한해가 문제가 어려워 고득점자가 적으면 다음해에는 반대로 너무 쉬워져 고득점자가 사태가 나는식의 패턴이 반복되고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진학지도교사들이 혼란에빠지고 결과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더디게 하고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같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처럼 난이도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69년부터 실시한 대입예비고사때부터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대입작전에 일관성있게 대처할수가 없다는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또 대입학력고사가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쉽고 어려운 것을 반복해서 출제함에따라 고교교육에도 일관성을 고수하기 어려운 영향까지 끼치고있다.

이번에실시된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82학년도 학력고사와는반대로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됐는데 이바람에 고득점자가 뜻밖에도 대량으로 나타날것이 예상되고있다.

7일현재 고등학교와 입시전문가들이 종합분석한 결과에의하면 이번학력고사의 성적분포는 크게높아져 고득점대인 3백점이상득점자가 애초예상했던 2천4~5백명선보다도 더욱늘어난 4천명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82학년도의 8백27명에 비하면 대단히 크게 늘어난 숫자로 이번시험이 그만큼 쉬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있는 것이다.

지난 79학년도를 기준으로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가 계속 반복되고있음이 잘나타나고있는데 79년도는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5백49명이었으나 80년도는 시험이 쉬워서 4천48명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 그러나 다음해인 81년도는 1천8백82명으로 다시 줄어들어 시험은 약간 어려워졌으며 82학년도는 더욱 어려워져 8백2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83학년도는 크게 늘어난것.

◇학년도별 고득점자 분포 추이
(83학년도는 大學入試社의 예상수치임 · 체력장포함)

점수	79학년도	80	81	82	83
300 점이상	549명	4,048	1,882	827	2,500
290 〃	1,667	7,711	4,326	2,090	5,500
280 〃	3,645	12,829	8,062	4,260	10,700

한편 이번 학력고사를 직접 담당한 한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때 82학년도보다는 쉽게 출제하려한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일선학교나 입시전문가들이 예상하는것처럼 쉬운것은 아니다. 작년이 꽤어려웠기 때문에 반대로 매우쉽다고 느끼는것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력고사의 난이도는 출제하기전 그기준을 대강세우지만 정확하게 어느정도를 올리고 낮추는가는 불가능하기때문에 다만 교육학적인이론과 전년도까지의 출제경험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난이도조정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난이도란 「정답률」을 말하는것으로 출제된 문제에대해 어느정도 맞출수있는가를 나타낸 수치. 난이도 1이면 전부맞추는것이며 난이도 0.7은 70명이 정답을 쓴다는뜻이다.

이번 입시에서는 난이도를 0.55에서 0.6정도로 높이고 특히 성적분포도는 고득점자의 층이 두터워지도록 부적(負的) 분포를 배려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난이도를 제대로 조정하려면 표준화작업이 전제되어야하며 표준화작업에는 최소한 2년동안의 기간과 학생을 상대로한실험이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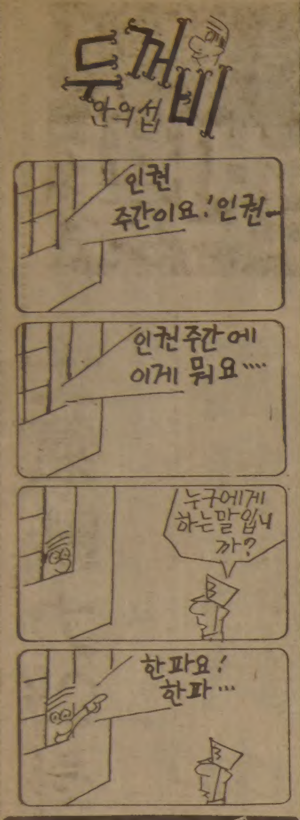
실제로 시험결과 성적분포가 좋을때는 이번의 경우처럼 진학지도에 혼선을 빚기도하며 특히 본고사가 없는 내년도에는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대량으로나와 입학사정에서 내신성적이 상대적으로 급등, 새로운문제를 일으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출제에서 난이도조정이 주먹구구식임을 단적으로 나타낸것은 외국어과목중 택일하도록된 영어와 일본어 과목.

문교부는 애초 일본어를선택함으로써 이득을 보지않고 영어를선택함으로써 손해를 보지않도록 난이도를조정, 영어를쉽게, 일본어를어렵게 출제했으나 난이도조정이 잘못되고 애초의 의도보다 지나쳐 입시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어를 선택한수험생이 영어보다 평균10점가량 손해를 보는 불균형을초래했다는것.

또 난이도 조정을 피하고 일부러 어렵게 출제하기위해 「교과서밖」에서 몇개의 문제를 낸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표준난이도는 이웃 일본이나 미국등지의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적용하고있다. 【李鍾九기자】

◇우체국의 送年인파 세밑을 20일 남짓 남겨둔 요즈음 각 우체국창구는 가까운 이들과 정을 나누려는 시민들로 붐벼 벌써부터 세모(歲暮)분위기를 느끼게한다.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서울中央우체국의 경우 하루 이용객은 평소보다 5천명이 늘어난 3만명정도. 아프리카와 캐나다지역은 7일로 접수가 끝났고 호주·뉴질랜드는 9일, 미국은 10일, 日本은 13일, 대만·홍콩은 14일로 접수가 끝난다.



"卒業式 학생중심 간소하게"

全南교위 교육감賞등 不要절차 폐지

【光州】全南도교위는 7일 82학년도 졸업식부터 교육감상과·교육감고사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학생중심의 졸업행사가 되도록 하라고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위가 전국에서 처음실시키로한 졸업식전 정화지침을 보면 졸업식은 1시간내에 간소하게 치르되 졸업장 수여는 개별로 호명, 학교장이 직접 수여토록 하고 종전 종합선정제에 의해 시상하던 교육감상을 폐지하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졸업생에게 주어왔던 내빈상도 일체 사절키로했다.

학교장상의 내용도 집단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개인의비범한 노력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내세워 표창토록 했으며 내빈들의 축사도 사절토록 했다.

특히 졸업식때마다 내빈들의 참석이 늦어져 식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졸업생들에게 안배하는 식으로 주어져 왔던 시상제도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위의 이같은결정은 두발및 교복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모든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개방됐는데도 아직까지 졸업식만이 일제때부터 내려온 권위주의적인 형식에 치우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聯合】

고압선공사중 送電

電工1명死亡·3명重傷

【議政府】6일하오 3시께 경기議政府市 議政府3동1의1 경의국교앞 전주에서 1만2천볼트의 고압선 이전공사를 하던 전공4명이 감전, 서울 감전사전공 최성대씨(45·서울中區新堂洞)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이덕재씨(28·서울東大門區忘憂洞)등 3명은 중화상을 입고 도립 議政府병원등에 입원, 치료중이나 중태다.

최씨등은 이날 경의국교앞 고압선이 가정집과 너무 가까이 지나 1m가량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하다 변을당했는데 당초 휴전을 시켜놓고 작업을하다 예정시간인 하오3시까지 끝내기가 어렵게되자 한전측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측이 예정대로 송전을 했다는것.

이날공사는 한전측의 하청을 받은 대경개발(대표 고대경·경기議政府市 佳陵1洞)이 일손이모자라 서울등지에 있는 전업사직원들을 일당3만원에 임시로 고용, 작업을 시켰다.

한편 한전議政府지점은 작업예정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예정시간인 하오3시에 송전을한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전議政府지점 관계자와 공사를맡은 대경개발 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수사에 나섰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치안본부 警長등 구속

港灣 서비스업 청탁미끼 돈받아

서울지검 수사과는 7일 치안본부 통신과소속 李南淳경장(35)과 金東哲씨(39·무직·서울西大門區弘恩洞16의34)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4월중순께 서울 정부종합청사뒤 명보다방에서 東海市松亭洞신일화원대표 崔鍾煥씨(45)에게 『항만관계자에게 부탁해 항만서비스업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청탁비조로 4백35만원을 받아 李경장이 2백20만원 金씨가 2백15만원을 각각 나누어가진 혐의다.

징역 12년宣告

女工살해 暗埋葬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李永範부장판사)는 7일 자기회사여공을 살해한뒤 충남安眠島에 암매장했다가 3년만에 검거된 韓正義피고인(43·서울 永登浦區汝矣島洞 孔雀아파트A동 508호)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를적용,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韓씨의범행을 도운 내연의처 李明子피고인(27·다방업·서울麻浦區鹽里洞 진주아파트1동 1002호)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李피고인의 어머니 金蘭基(47) 남동생 李鍾鎭(23) 피고인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소아마비豫防藥 먹고 어린이 하룻만에숨져

【仁川】생후3개월된 여자아이가 소아마비예방약을 먹은지 하룻만에숨져 경찰이 사인규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4일 상오11시께 仁川시中區新興洞 신흥의원(원장 이준영·57)에서 허갑철씨(33·仁川市南區龍현2洞550의8)의 생후3개월된 외딸 선희양이 소아마비예방약인 포리오랄 0.2㏄를 먹은후 집에돌아가 잠을잤는데 다음날인 5일 새벽6시께 피를흘리며 숨졌다는것.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7일 시체를 부검하는 한편 먹다남은약을 증거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신흥의원장 이씨는 『허양에게 먹인 소아마비예방약은 지난10월초 서울에서 구입, 냉장고에 보관해 왔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성이 없다』고 말했다. 【聯合】

40代남자 變死

배찔린채 논에

【金泉】7일낮12시께 경북金陵郡 鳳山面 仁義洞73 오춘근씨(52) 소유논에 40대남자가 배와옆구리에 칼에 찔린 상처를입고 숨져있는것을 이곳을 지나던 김종근씨(48·代項面大龍洞13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남자는 1m67㎝ 가량의 키에 밤색잠바와 국방색바지를 입고있었는데 배와오른쪽 옆구리에 2㎝가량의칼에 찔린상처를 입고 피를흘린채 엎어져 숨져있었다. 【聯合】

大雪추위 한풀꺾여

南部지방 당분간 零上의 포근한날씨

연3일째 계속된 大雪추위가 7일하오부터 풀리기 시작, 남부지방은 앞으로 2~3일동안 영상을 유지하는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 중앙기상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전역에 정체돼있던 시베리아고기압이 이동성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약한 기압골이 들어 날씨가 풀렸다고 밝히고 10일께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흐리고 눈또는 비가 한차례 오고 기온은 다소 쌀쌀해지겠으나 아침최저 영하3~4도의 예년기온은 벗어나지 않겠다고내다봤다.

4명 모두自首

집단탈출 卽決피고

【大邱】속보=지난5일하오 호송경찰관의감시 소홀을틈타 집단 탈출했던 즉결피고인7명중 잡히지않았던 崔모군(20·大邱市西區內唐洞)등 4명이 6일밤늦게 大邱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聯合】

창경원의 「虎公」 20살로 天壽마쳐

昌慶苑「虎公」(사진)이 7일 상오6시30분께 숨졌다.

올해20세인 숫호랑이는 벵갈산 수놈으로 지난72년1월 일본인이 기증한 것인데 지난해11월부터 노쇠현상을 보여 우리안에서도 운동을 기피하는등 퇴행성변화를 보여왔다는것. 특히 이(齒)가 모두 마모돼 먹이를 씹지못해 창경원측은 산닭을 갈로다져 하루2차례씩 급식하는등 극진히 보살펴왔는데 최근에는 소화장애마저 겹쳐 고생하다가 이날 천수(天壽)를 다하고 잠자는듯 조용히 숨진모습으로 순찰중이던 사육사에게 발견됐다는 것.

한때 창경원의 왕자로군림했던 이호랑이는 지난76년11월 전남順天에서 구경온 徐모씨의 오른쪽팔꿈반을 물어뜯은 난폭성을보여 사육사들사이에 「요주의 동물」로 감시대상이 되기도했으나 이제 고기와뼈는 경매처분돼「생전에 지은죄」대신 인간에게기여하게됐고 모피와 두개골만이 박제가돼 남게됐다.

이「虎公」이 숨짐으로써 창경원에는 20살짜리 암놈한마리와 8살짜리 암·수 한쌍등 3마리의 호랑이가 남아「호랑이 왕실」을 지키게됐다.

境界측량나서

독립紀念館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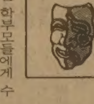
【天安】충남天原郡은 6일부터 독립기념관이건립될 木川面新溪·南化·交川里 일대에 대한 경계측량에 나섰다.

天原郡은 독립기념관이 들어설 부지1백8만평에 대한 경계측량지점에 삼각형의 붉은색 깃대 30개를 세웠는데 이번주안에 3백개의 깃발을 추가로 세워 개괄적인 경계측량을 일단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聯合】

大入試占

三空命理哲學院 曺誠佑씨

"요행보다 참된 實力이 자연의 順理"



대학에 들어가야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심정은 요즘 물에 빠진사람과 똑같다. 자녀의 대학입학에도움이 된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이런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체면 불구하고 점을치러 가기도 한다. 요즘 점을치는 사람들에 치마바람이 일고있는 것도 다 이때문이다.

서울鍾路區 公平洞에서 三空命理哲學院을 열고있는 曺誠佑씨(56·사진)는 2개월전부터 치마바람의 소용돌이속에서 눈코뜰사이가없다.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매일15시간씩 입시점을 본다. 대입학력고사의 성적과 지방대학 학과의 합격여부를알아보려는 학부모들에게 수험생의 관상과 사주를 보고 수험생의 운을 풀이한다.

『인당(눈썹과 눈썹사이)에 검은 기운이있고 윤택함이없어 희망대학에 가기어렵다』는 점괘라도나오면 학부모는 금방 자녀가 떨어지기나 한것처럼 코가 쑥빠져 돌아간다.

『올해(壬戌年)는 물(水)이 많은 해이므로 생일에 나무(木)가 있으니 반드시 합격한다』는 풀이가 나오면 그 학부모는 체신도잊고 기뻐 날뛴다. 한사람 운수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정도.

曺씨는 자신의 운수풀이가 80%의 높은 적중률을 지니고있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단순히 점괘만 봐주는것이 아니라 진학상담도 곁들이고 있는데서 이같은 적중률이 나온다는 풀이. 실력과 운마저 없는 수험생이 힘에 겨운 학과를 고집할때는 자신이 준비해둔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차근차근 설명, 방향전환을 권한다는 것.

『학부모들이 허영에 들떠있는풍조가 없어질 기세가 보이지 않는군요. 취직이 잘되고 돈벌이가 잘된다면 자녀의 적성을 무시하고 그학과에 넣으려고 기를 씁디다』

曺씨는 10살때 집앞을 지나던 시주승이 『이 아이는 단명할 상이니 절에 팔아야한다』고해 그길로 절에 몸을 담았고, 부산의 한 고서점에서 禪宗의 창시자인 達磨의 相法이 수록된 水鏡集約篇을 발견, 역리학에 관심을 가졌다.

『요행으로 좋은 운을 바라기전에 진실한 실력을 쌓는 길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합격의 길이 아니겠읍니까』

실력과 좋은 점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의 말은 운명철학이 아니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朴榮基기자】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탁 아 소

공공봉사로써, 토론토교육성에서는 아래 학교내 다음과 같이 탁아소및 보육(유아)학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동부지역

Bain Avenue Daycare (Ages 2-9) Withrow P.S. Broadview & Danforth 463-1457

Balmy Beach Daycare (Ages 4-9) Eastern Beach Area 694-0348

Applegrove (Ages 2-9) Duke of Connaught P.S. Dundas & Greenwood 461-8143

Dandylion (Ages 6-9) Wilkinson P.S. Danforth & Donlands 461-6379

Queen Victoria Daycare (Ages 6-9) Queen Victoria P.S. King & Dufferin 530-0683

Davenport Good Beginnings (Ages: Jr. & Sr. Kindergarten) Davenport P.S. St. Clair & Weston Rd. 656-2510

Hughes School-Age Daycare (Ages: Jr. Kindergarten to 9 yrs.) Hughes P.S. St. Clair & Caledonia 656-8774

Regal Road Daycare (Ages 2-9) Regal Road P.S. Dufferin & Davenport 656-0521

Ferncliffe Daycare (Ages: Jr. Kindergarten to 9 yrs.) Fern Ave. P.S. Queen & Roncesvalles 588-1471

Time for Play Co-op Nursery School (Ages: 4 yr. olds. Afternoons) Runnymede P.S. Bloor & Runnymede 769-1550

서부지역

Swansea Daycare (Ages 6-9) Swansea P.S. Bloor & Runnymede 763-1908

Brock Community Daycare (Ages 18 mos. - 9 yrs.) Brock P.S. College & Lansdowne 535-3491

북부지역

Alternative Primary School (Ages 4-5) Alternative Primary Spadina & Eglinton 486-0464

John Wanless (Ages 4-5) John Wanless P.S. Yonge North of Lawrence 488-8571

Hawthorne/Christie (Ages 4-5) Hawthorne II Bloor & Christie 537-2534

McMurrich (Ages 2½ - 5) McMurrich P.S. Winona & St. Clair 656-3831

Cottingham Daycare Centre (Ages 6-9) Cottingham P.S. Avenue Rd. & Davenport 922-7402

중앙지역

Church St. Daycare (Ages 4-10) Church St. P.S. Church & Carlton 922-1902

West End Parents (Ages 18 mos. - 10 yrs.) Old Orchard P.S. College & Dovercourt 534-6761

King Edward School-age Daycare (Ages 6-10) King Edward P.S. College & Bathurst 922-8705 or 925-2103

Gibraltar Point (Ages 2-6) Island P.S. Toronto Island 366-5255

Centro Clinton (Ages 2-5) Clinton P.S. College & Clinton 537-5841

Ogden Daycare Centre (ages 4-10) Ogden P.S. Spadina & Dundas 593-0624

St. Lawrence Community Co-op (Ages 2-10) Market Lane P.S. St. Lawrence Market area 363-9425

Garrison Creek (Ages 2-5) Niagara P.S. Queen & Bathurst 362-0541

요금은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변합니다. 탁아소장려금의 기금부족으로 인해, 탁아소비의 경비보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장소들이 전부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관계및 비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은 전화하십시요. 토론토내 공립학교의 탁아소 일반사항은 598-4931, 313 또는 314로 전화하십시요.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내년 公職者 재산등록 「次官級」이상 600명

國會議員·中將등 포함
배우자·直系 尊卑屬도
政府, 倫理法시행령案마련
2단계는 85년부터 申告

정부는 6일 부동산과 動産을포함한 公職者들의 재산등록, 선물신고및 退職후 就業제한등을 골자로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公職者윤리법시행령(案)을 마련, 국회 내무위에 보고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시행령은 이달중순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확정된다.

이시행령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대상動産

구 분	價 額
현금 수표	합계 1천만원이상
예금	〃 〃
有價증권	〃 〃
채권과채무	〃 〃
소득	年間합계 1천2백만원이상
金·白金	총중량價額 5백만원이상
寶石類	▲다이어:1캐러트이상 ▲그외보석:다이어1캐러트상당이상
골동예술품	개당 5백만원이상
會員券	券當 〃

등록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토록했는데 1단계등록대상자는▲국회의원▲차관급이상의 행정부고위공무원▲軍中將이상▲고등법원장급 이상의 법관▲한국은행총재및 정부투자기관의 長등으로 국회가 2백80명, 법원이 19명, 행정부가 약3백명등 모두 6백명에 이르며 배우자와 直系尊卑屬을 포함할경우 약3천6백명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재산의 범위에 부동산은 물론 動産까지 포함시켰으며 공직자의 재산增減 내용을 파악할수있도록 動産의 경우는 예금, 有價증권, 債權, 債務, 소득, 귀금속, 골동품및 예술품, 각종 會員券등으로 나눠 이를 일정價額이상및 수량별로 각각 등록토록했다.

시행령은 등록動産의 범위를▲현금이나 수표의경우는 合計 1천만원이상▲예금합계"▲유가증권합계"▲채권과채무합계"▲소득(공직자로 받는 월급제외)은 연간 1천2백만원이상▲金또는 白金은 총중량이 5백만원이상▲寶石類는 다이어1캐러트이상▲골동및 예술품은 個當5백만원이상▲會員券은 券當5백만원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재산등록내용의 公開여부에 대해서는 母法에서 원칙적으로非공개키로돼있음에따라 일단 공개치않기로방침을 정하고 시행령에는 공개, 비공개여부를 일체 표시치않기로했다.

朴贊兢총무처장관은 이날국회내무위 간담회에서 시행령안에대해『「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특히 공직자의 부정 비위를사전예방하기위해 마련한 제도적장치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데 큰의미가있다』면서『공직자윤리법은 최초로 실시하는제도이므로 시행착오나 부작용이없도록하고 제도의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단계적으로실시해나가면서 보완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는 모두 5천4백명에달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朴장관은 1단계 실시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등록의무자에대해선『제1단계등록을시행해가면서문제점을보완하여시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2단계 등록은 2년뒤인 85년1월부터실시될것으로알려졌다.

시행령안은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내용이의심될경우 등록기관의 長은 입법 사법 행정 3府에 각각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얻어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軍務員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의뢰, 검사(軍검찰관)가 사실조사를 하도록했으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변동재산을매년 1월중에 신고토록했다.

시행령안은 또공무원과 공직有關단체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美貨 1백달러 이상 또는 국내시가 10만원이상의선물을 받았을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이를 인도토록하는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은 퇴직전 2년동안 담당했던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영리私企業體에 퇴직일이후 2년동안 취업을 제한토록했으며 다만 해당자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했다.

◇段階別 財産등록의무자 총 약6,000명

단계별	국 회	법 원	행 정 부
1단계(약600명)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의원 (280명)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대법원장비서실장 (19명)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처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울특별시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헌법위원회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비서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전기획부차장, 감사위원, 감사원사무총장,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조정실장, 차관, 처의차장, 청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부시장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特1級大使 ▲대학교의총장, 부총장, 4년제대학의학장, 교육감 ▲치안본부장 ▲중장이상장관급장교 ▲정부투자기관의장, 한국은행총재 (이상약3백명)
2단계(5,400명)	3급이상공무원 (49명)	법관 3급이상공무원 (775명)	▲3급이상공무원▲검사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市長·郡守·구청장·경찰서장 ▲5급이상 國稅·關稅공무원 ▲2년제 대학장 ▲소장및 준장인 장관급장교▲3급이상군무원▲公職有關단체임원 (이상 약4,600명)
	329명	794명	약4,900명

韓日議員聯 총회… 經協문제 중점協議
한국代表 40~50명 파견

韓日의원연맹은 6일서울팔레스 호텔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1일 東京에서열리는 금년도 합동총회에 40~50명의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하는한편 총회에서 논의될 각分科委별議題를 재확인했다.

동연맹 朴敬錫 대변인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측은 교과서 왜곡시정문제와 經協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총회에서 채택될 공동 성명서에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李載瀅 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한국측 대표단은 20일 東京으로 출발, 하오에 나까소네(中曽根康弘) 수상과 야스이·겐(安井謙) 일본측회장을 만나 양국의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각分科委別의제는▲美蘇의 세계전략과 東北亞안보문제(安保外交委)▲韓日경제및 기술협력추진방안(經濟委)▲교과서왜곡시정문제와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방안(社會文化委)▲在日한국인지위향상방안(法的地位委) 등이다.

레이건, 내년初 極東 순방길에
美CBS放送보도

【워싱턴=聯】 레이건미대통령은 내년초 극동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美CBS방송이 5일 보도했다.

CBS방송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의 극동순방시기가 내년초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AP통신은 그의 극동방문이 늦겨울이나 내년초 봄께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보도기관들은 레이건대통령의 극동순방 대상국이 어느나라들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3黨총무회담
政治議案타결 또失敗
常任委활동 3일째空轉

政治議案처리를 싸고 의견대립을 보여온 與野는 지난 주말에이어 6일에도 3黨총무회담을열어 異見절충을 시도했으나 타결을 보지못하고 7일하오 다시 회담, 다시논의키로 했다.

이날회담에서 야당측은 民正黨이 계류政治案件에 대해 처리보장을 하지않을경우 앞으로의 국회常委활동에 응할수없다고 계속요구했고 民正黨은 常委를 진행시키면서 정치의안처리를 논의하자고 맞서 합의를 보지못했다.

이에따라 이날하오 열리기로돼있던 외무, 상공, 보사, 건설등 각常任委는 이날도열리지않아 3일째 空轉됐는데 7일회담에서 합의를 보지못할경우 국회常委활동은 당분간 교착될것으로보인다.

이날 林鍾基民韓총무는 현재 관련常委에 계류중인 국회법개정안, 언론기본법개정안, 지방자치관계법개정안, 정치활동 被규제자 解禁건의안등 소위 政治議案의 우선처리에 대한 정치적인 타결을 주장했고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夏·秋穀수매결정에 있어 국회동의를 주요골자로하는 糧穀관리법개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李鍾贊民正黨총무는 상임위활동은 계속하면서 政治議案은 시간을두고 신중히 풀어가자고 맞섰다.

그동안 여야는 政治議案을 놓고 총무회담등을통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는데 李載瀅 民正대표가 시사한3黨3役회의나 3黨대표회의에서정치적 타결이 이뤄질가능성도없지않다.

民韓黨은 이날 회담이 끝난뒤 확대간부회의를열고 政治議案의 처리에대해 이번 政기中 어떠한 매듭을 짓기위해 여러가지 통로를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기로했다.

金총리 오늘下午 콜롬비아에

【보고타(콜롬비아)=河長】 南美巡訪길에 오른 金相浹국무총리는 6일 하오(현지시간) 첫 공식 순방국인 콜롬비아의 보고타국제공항에 도착, 5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金총리는 이곳에서 벨리사리오·베탄쿠르·쿠아르타스 대통령을 비롯 정부및 의회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협력문제 및 무역증대를 통한 경제교류확대 방안등에 관해 의견을교환할 예정이다.

金총리는 또 한국전參戰기념탑을 참배, 6·25때 戰死한 콜롬비아군인들의 명복을 빌고 보고타市廳을 예방,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壯하다! 『아시아 3強』 凱旋
酷寒속 선수단歡迎 인파 37km나 뻗어

◇영하의 개선 카 퍼레이드。 金메달 28개를 안고 개선한 한국 선수들이 추위로 외투와 방울 모자를 쓴채 카 퍼레이드, 연도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뉴델리 제9회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28개를 자랑스럽게안은 한국선수단이 6일하오 KAL특별전세기편으로 개선했다.

金浦공항착, 승마를 제외한 20개종목에 출전, 金28, 銀28, 銅메달37개로 종합3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단은 피로한기색이 없이 늠름한 모습으로 트랩을내려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한국선수단은 공항 램프에서 경찰악대의개선 행진곡이 연주되는가운데 李源京체육부장관, 金溶植올림픽 조직위원장,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관계인사들의 영접인사를받았고, 공항광장에는 각경기단체, 가족, 친지들이 플래카드를들고 이들의개선을 축하했다.

선수와 임원들은 산뜻한미색양복에 方烈갈록이든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비행기트랩을 내려왔는데 수영3관왕崔允喜선수가 금메달3개를 목에걸고 미소를머금고 제일먼저내렸고 마라톤왕자 金榮坤선수도 30도가넘는 기온차도 아랑곳없는듯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메달을 못딴 선수들은 비행기의 뒷트랩을 조용히내려 대기했던 버스로 총총히 걸어가 좋은대조를보였다.

金鍾烈단장은 『국민들의성원에 힘입어 3위를차지하고 1명의 사고자도없이 무사히 귀국했다』는 간단한 귀국보고를했으며 이어 선수단은 汝矣島광장에서 3시30분부터 孔德洞로터리~西大門~光化門~鍾路~淸凉里~泰陵 선수촌을 잇는 37km를 오픈카 퍼레이드를 벌였다.

南北韓·日·中共 4強경기 찬성
中共팀 副團長

【東京=聯】 제9회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吳重遠中共선수단 부단장은 5일 중공은 아시아지역의 스포츠 향상을 위한 韓·中·日·北韓 4개국간의 각종운동경기의 개최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吳부단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뉴델리 현지에서 마련한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공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모든종목에 걸쳐 2개월이상의 합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全國이 氷點下…

地平線

미국 고교졸업생의 대학입시예비고사(SAT)평균점수는 최근 20년동안에 뚝 떨어지고있다. 50년대말 국어는 4백78점이었던게 70년대말엔 4백24점으로, 수학은 5백2점에서 4백66점으로 「폭락」했다. 이유는 텔리비전때문이란게 교육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조사로는 미국의 어린이들이 16세때까지 1만5천시간을 텔리비전앞에서 보낸다고한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긴것이다.

▼일본사람의 31%는 전화·자동차·냉장고·신문보다는 텔리비전을 갖겠다고 생각하고있다한다. 하루 평균 8시간12분을 텔리비전에 매달려 사는 국민다운 생각이다. 프랑스의 어린이보호위원회회장 디리아르박사는 어린이들이 하루 2시간이상 텔리비전을 보지않도록 해야된다고 말하고있다. 타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저녁6시에서 8시까지는 아예 방송을 중단한다.

▼미국정신건강연구소는 텔리비전이, 이제 『대리부모요, 대리교사가됐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제3의 물결의 혁명」이 일어나고있다고들 말한다. 첫번째는 전선이었고, 두번째는 전화선, 세번째가 케이블·텔리비전의 출현이다. 68년만해도 미국에서는 3백60만가구가 케이블·텔리비전을 봤지만, 이젠 2천3백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케이블·텔리비전 가구는 전체 텔리비전가구의 30%나 된다. 서유럽에서도 1천5백만가구에 이르고있다. 지금의 케이블·텔리비전은 대체로 오락프로를 주로 하고있으나 앞으로 도난경보·물가·증권정보등의 정보산업과 연결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덩달아 미국의 3대 네트워크 시청률이 떨어지고, 3대 네트워크회사와 ATT같은 재벌기업이 여기에 진출할 작정으로 있다.

▼한국의 텔리비전이 지난 1일로 컬러방송 두돌을 지냈다. 그만큼 흑백시대에 비해 영향력이 껑충 뛴 것이다. 또한 운영면에서 상업방송을 없앴고, 따라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조직이 되고있다. 뉴스 프로가 늘어나고 교양프로와 기획구성이 늘어난것도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수있다. 컬러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미숙한것이 사실이나 향상된것도 사실이다.

▼독점산업은 좋은점도 있으나 결점도있다. 모든 대중문화가 개성과 창조성을 잃고 시민들은 주어진것만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다는것이 가장 큰결점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텔리비전산업에 개성과 다양성을 불어넣어줄길을 찾아봐야할 것같다. 케이블혁명이나 미구에 닥칠 인공위성을통한 「직접방송체제(DBS)」등의 「변화」에도 서둘러 참여해야할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3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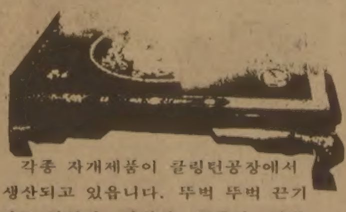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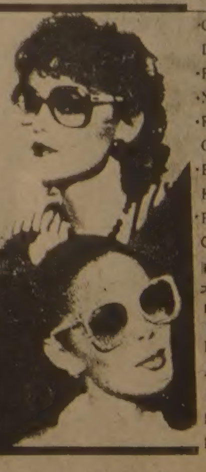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Turtle Mother of Pearl Inc.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뚜벅 뚜벅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져 걷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애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거북이나전칠기공예사
대표 이정석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를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집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動産포함 非公開로

내년 實施될 公職者윤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시행을 추진해온 公職者윤리법이 6일 국회측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案)이 마련됨에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가 예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되게 됐다.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위해 정부수립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제도는 공직자의 양심선언과도 같은 제도란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모으고있다. 50년代말부터 역대 정부마다 이제도의 시행을 시도해왔으나 햇빛을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제도의 실시는 실시자체에도 큰의의가 있다고할수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끝에 이날 국회측과의협의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案)은 재산등록의 非公開, 등록제도의 단계적 실시, 등록재산에 動産포함등을 주요골자로하고있다.

시행령 제정작업책임을 맡은 朴贊兢총무처장관은 비공개 결정에대해 『등록재산의 공개에서 오는 국민의 기대감충족등의 장점과 의욕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자세에서 시행가능한 부분부터 착실히 시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개에서 오는 단점은 私有財産權비밀의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등록재산이 예상보다 적을경우 『그것밖에 없을까』『숨겨 놓은것이많을것』이라는 등 오해가 많아지지 않을것이고 생각보다 많으면 『어떻게 돈을많이 벌었느냐』『청렴이 의심되니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등 모함까지 일게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등이 지적되고있다.

또한 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공직자가 성실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자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것이란는 우려도 없지않다는설명이다.

朴장관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등록자의 임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임명권자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自省과 不正豫防의 효과가 있을것』이라면서 『재산등록제를 실시하고있는 나라중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비공개원칙을 채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등록제 자체가 공직자의 재산상태및 增減내역을 국민에게 감시시킴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재산증식을 막자는데 이 법안제정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비공개원칙에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않다.

어떻든 정부측은 이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있게 시행키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定着이 제일 중요하고 그 定着의 전제는 등록재산이 비공개가 돼야한다는 판단에서 비공개키로 결정한것 같다.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제도가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와 監視장치가 확실히 돼야하고 등록사항에대한 소신있는 管理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이법과 시행령은 성실신고의 감시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각府에 설치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장의 의뢰를받아 조사를하는 제도를 두고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내용에 의심이 가는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얻어 등록기관장이 법무장관(또는 국방장관)에게 조사를 의뢰, 조사를 하게돼 있지만 재산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관정을하는 주체가 문제가된다 하겠다.

일반행정부처나 마찬가지인 등록기관의 실무자가 장관이나 차관의 재산에 의심스러운 점을 용기있게 지적하고 나설수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면 공직자의 등록재산상황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은 용기있고 정의감이 투철한 모범적인 공무원이어야 할것같다. 또 이런 실무자가 제기한 異議는 몇단계 거치게되지만 승인하게 되는 윤리위원회구성위원도 청렴결백한 사람들로 위촉해야 할것이다.

이밖에도 등록재산상황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관리를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의 실무자가 확보돼야 할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등록대상재산에 不動産은 물론, 動産까지 포함시키고있다는 점에서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民正黨은 지난9월 재산등록을 실시하면서 부동산만 등록하도록하고 동산은 점차적으로 등록하되 등록내용도 공개치 않을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이에비하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進一步한 셈이다.

이번 시행령이 動産의 대부분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산을 蓄積할수있는 수단이 싱가포르처럼 부동산과주식에 국한해서 볼수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이에 못지않게 귀금속과 골동품, 예술품은 물론, 골프클럽 회원권등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는 회원권까지 蓄財의 대상이 될수있기 때문이었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은 또 선물신고제의 신고기준액과 就業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것이 특징이다.

어쨌든 이제도가 實效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등록재산의 공정한 관리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개인이익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이제도가 과거에도 시행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실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정치적 악용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더욱 다져져야만 定着될수 있을것이다.

【河長春기자】

◇심각한 국회내무위。6일하오 총무처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안을 받아든 내무위소속의원들은 전체간담회리는 분위기를잊고 신중히 이를 검토하고있다。

公開하면 誤解·모함 心理的 불안우려도

誠實신고·監視장치 확보 앞서야

등록상황 所信있는 관리 바람직

問答풀이로 본 倫理法 시행령

골동품·書畵는 품명·作家·크기 등록

한개 5백만원이상 藝術品·會員券도

—내년1월1일부터 등록을 받기시작하는 재산등록의경우 1단계로 次官級이상 6백명을 대상으로한다고했는데, 나머지는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1단계시행을 눈앞에 둔 다음단계의 재산등록실시시기가 언제될것인지 정해진것은 없다.

다만 이번에 1단계로 한달동안에 등록을받아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 또1년후 그1년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케돼있는 규정에따라 이를점검하는 단계가 지나뒤가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朴贊兢총무처장관도 이에대해 『다음단계의 등록은 한두해가 돌아간후가 될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해 1단계가 정착된후 2단계로 옮아갈것으로 보이는데 그시기는 85년초가 될것으로예상된다.

—등록대상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대부분의 動産을 포함시키고있는데 평가기준이 뚜렷치않은 골동품, 書畵등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그런경우 價額은 평가記載하지않고 재산적가치가 있는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品名(예山水畵)과 작가, 크기를 등록하기만하면 된다.

—신고때 價額은 기재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록해야할 動産의 대상은.

▲이대목은 6일 국회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최종결정됐다. 그 내용은 현금수표, 예금, 有價證券, 債權과 債務는 모두 1천만원이상, 소득은 연간 합계1천2백만원, 귀금속의 경우 金·白金은 총重量價額 5백만원이상, 보석류는다이어 1캐럿트 이상, 골동예술품 개당5백만원이상, 회원권 권당 5백만원이상이다.

—등록한재산을 중심으로 1년후 변동사항이 생길경우 변동신고케 돼 있는데 變動엔 재산이 줄었을 경우도 상상할수있다. 이것도 신고 하는가.

▲부동산은 增則나 減少에 불구하고 모두 신고해야하고 동산은 재산의증가로 등록재산의 범위에추가되는경우는물론 재산의 감소로 등록재산범위에 해당되지않는경우에도 변동신고를해야하며 이때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明示해야한다.

—1단계등록의무자이외의 다음단계의 등록의무자는 어떤사람들이될것인가.

▲지금으로선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것으로 보이는데 2단계에선 행정부의경우 3급이상공무원과 검사, 총경이상 경찰관, 시장, 군수, 구청장, 5급이상 세무·관세공무원, 2년제 대학장, 少將및准將인 장관급 장교, 3급이상 군무원, 公職有關단체임원등 4천6백명과 법관및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7백75명, 국회의 경우 3급이상 공무원 49명등 모두 약5천4백명이다.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외국정부로 부터 받는 선물은 신고케 돼있는데이에 대한관리는어떻게하는가.

▲선물의 관리유지책임은 국회와 법원은 별도로 관리하나 정부는 총무처장관이 통합관리한는데 총무처장관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문공부에 이관하고 賣却처분할필요가 있는 선물은 조달청에 이관케 된다. 현재도 국무총리훈령(80년8월20일)에 따라 외국정부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1백달러이상 또는국내싯가로 10만원이상되는선물은 신고토록하고 있으며 접수받은 선물은 各部處가 分散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각처분할 필요가 있는것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분하되 선물신고자에게 매수의 우선권이 부여되게 할 예정이다.

—선물신고제도 해당자는.

▲윤리법은 이조항에서 공무원 또는 公職有關단체의 任·職員이 선물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모든 공무원이 해당될뿐아니라 이들 해당자의 가족이 해당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선물도 신고해야 한다.

—就業제한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취업제한제도는 단계적으로 실시하지않고 이법이 시행되는 1월1일부터 재산등록대상직자6천명 전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있다.

—외국의 재산등록 제도는.

▲미국의 경우 등록의무자는 국장級(GS16)이상 공무원과 이에상당한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최초등록은 1천달러이상의 재산과 5천달러이상의 예금, 1만달러이상의 負債에대해 신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열람을 개방하고있다. 이와 보험부나 비밀업무담당자의 등록사항은 예외적으로 공개를않고있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와필리핀은비공개하고있는데싱가포르는선동적인 경우로꼽히고 있다.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것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식구조가 갖춰져 있고 안정되고 고도화된 사회여건에다 높은 수준의 경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公職有關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것인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1백3개정도로 정해 總理令으로규정할예정인데 구체적으로는 韓電,석유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등24개와 지방 公企業법에의한 지방公社및 公團등 7개,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出捐, 보조기관36개, 정부에서 기관의長이나 任員을 임명또는승인하는기관이나 단체36개로알려지고있다.

—罰則은 어떻게되는지.

▲벌칙에는 형사처벌과 징계로 나눠지는데 형사처벌사항은 등록사항을 임의로 열람, 複寫하는 경우, 이등록업무에 종사하는자가 업무상 얻은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취업제한위반의 경우가 해당된다.

징계사유가 되는 사항은 성실등록과변동사항등 신고의무위반,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이용금지 위반, 가벼운 비밀누설, 선물신고의무위반등이 포함된다.

메아리

베를리츠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어회화공부가 한창 붐이다. 시대의 潮流에 따라가자면 영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도 열을 올리기는해야할때다.

가끔 외국의 관광명소나 국제회의장에서 여러나라 말에 유창한 관광안내원과 동시통역원들을 만날때마다 부러워하지않는 사람이없다. 그래서 외국어를 너무 잘하면 기껏 관광안내원이나 동시통역원밖에 안되더라고 이솝寓話의 「신포도」식으로 자신을 위안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정말 외국어공부에 무슨 王道라도 없는가하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게 마련이다.

베를리츠라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語學學院의 이름이다. 각국의 웬만한 대도시에는 이학원이 다있다. 학원의수강생수가 아주적고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싼것으로 유명하다. 이학원을 창설한 사람이 맥시밀리언·베를리츠다. 그는 58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학원의 책임자는 그손자뻘인 찰즈·베를리츠씨。올해 68세로 예일대학에서 언어학과 역사학을 공부했다. 이사람이 구사하는 언어가 25개국어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말을 아는 사람중의 하나다. 그는 그덕택으로 2차대전중에는 미국의 스파이노릇도 한적이 있는데 그의語學力의 秘法을 경청해볼만하다.

뉴욕에 살고있던 찰즈·베를리츠씨는 3세때 이미 4개국어의 토막말을 할줄 알았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할아버지는 독일어,어머니는 프랑스어, 아버지는 영어, 사촌과 하녀들은 스페인어를 썼기때문이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알면 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의 해독이 쉽다. 또 독일어는 화란어를 배우기 쉽게한다.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딴나라말의 가짓수가 늘게된다. 10세때는 中國語를 독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語才가 따로 있다고 믿지않는 사람이다. 聽覺이나 기억력, 남을 흉내낼줄 아는 능력등이 다른나라말을 배우는데 도움은 될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集中力이라고 말한다. 한언어에 빠져들어갈줄 알아야하고 그것을 매일 익힐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을 배운다. 매일 잠들기전에 中國語 텍스트를 반드시 짚어든다.

그로서도 말을 배우는데는 現地民들과 대화하는것 이상 좋은 방법이없다. 그의 할아버지는 말을 익히기위해 언제나 외국인을 집에 들여놓고 살았다.

스페인의 속담에는 神이 악마를 벌하고 싶을때 악마더러 바스크語를 7년동안 배우도록 명령한다는것이 있다. 바스크語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베를리츠씨에게 물으면 특별히 배우기 까다로운 언어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모든언어는 노력만하면 누구나 다 배울수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베를리츠씨는 요즘 전화를 받고나면 영어로 대답을 했는지 스페인어로 했는지 자신도 모를때가 많고 동물원에 가면 어릴때 할아버지를 따라 가던 기억에서 독일어로 생각을하고 꿈은 아랍어와 라틴어로 꾼다。그는 母國語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強點이자 弱點이다. 그에게는 「母國語」라는 [illegible]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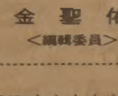
外國語熱에 자칫 조금이라도 母國語를 다쳐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外國語아닌 外來語의 범람에 우려의 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外來語가 가장많이 쓰이고있는 나라는 日本일것이라고 베를리츠씨는 지적한다.

프랑스가 영어의 來襲에 경종을 울리고있는것은 다아는일이지만 실상영어를 침해한것은 오히려 프랑스어쪽이었거라는것은 잘모른다.

1066년 프랑스의 노르망 민족이 영국의 색슨민족을 지배했을때 가지고 간 프랑스어는 지금의 영어에 많이 남아있다. 가령 「비프」. 이것은 프랑스어로 소를 뜻하는 「비프」에서 나온 말이다. 소는 영어로 「옥스」나 「카우」지만 요리상에 오르면 프랑스어가 된다. 돼지는 피그이지만 요리가 되면 포크인데 이것은 프랑스어로 돼지란 말인 「포르」에서 나왔다. 노르망민족이지배자로 군림하면서 가축이 가축으로 있을동안은 색슨어로, 가축이 식탁에 오를때는 프랑스어로 불렀던 것이다. 外來語는 上典의 언어가되고 母國語는 下僕의 언어가 되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려면 베를리츠씨의 노력을 배워야하고 우리가 外來語에서 우리말을 지키려면 「비프」의 교훈을 배워야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鄧노선」國法확인

新憲法 채택한 中共의 向方

生活수준 향상·法治主義를 강조

"資本主義 꼬리단 사회주의 始發"

◇中共의 實權者 鄧小平(右)과 黨총서기 胡耀邦이 4일 제5期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5차회의에서 新憲法채택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고있다。【北京4日AP聯合】

중공제5기 全人代(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4일채택한 新헌법은 毛澤東과 文化혁명 시대의 잔재를 청산,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는한편 제도적으로는 국가주석제의 부활과 국가군사위원회 창설을 그골자로하고있다. 이런내용들은 지난9월 12차全黨대회에서 그대강이 결정되어 미리예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鄧小平체제의 實用주의노선이 국법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있다.

中共은 이로써 사회주의현대화를 위한 발판을 구축, 사회주의체제 아래서의 안정과 번영을향한 대장정에 올랐다.

신헌법은 中共의 국가체제는 사회주의국가이며 이에 도전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용납될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49년中共정권수립이후 4번째로 제정되는 이신헌법은 전문에서 「계급투쟁은 끝났다. 그러나 국내외에 사회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적대적인 세력이 아직도 존재해있다。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계급투쟁은 계속될것이다』고 천명하고있다.

이어 신헌법제1조는 中共이 노동자와농민의 동맹에 근거를 둔 「人民민주독재」에 의한 사회주의국가임을 명시하고있다。종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이는 중공이 新憲法발효와동시에 사실상 毛澤東의 교조주의와 결별했음을 뜻한다. 毛와 文革의 극좌적 잔영을 신헌법은 일소해버렸고 毛澤東사상을 찬양하는 귀절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다。일부 中共전문가들은 중공이 신헌법을 채택, 자본주의 꼬리를 단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평하고있다.

새헌법에 나타난 제도적 특징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주석제의 부활이다. 전국인민대표3천40명이 행한 비밀투표에서 찬성3천37표 기권3표로 통과된 이신헌법은 지난54년이래 폐지됐던 국가주석제를 부활, 1명의 국가부주석이 국가주석을 보좌토록 하고있다. 국가주석이 부활됐다고는하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국가원수일뿐이다. 국가주석의 영문표기는 종전의 「스테이트·체어맨」에서 「프레지던트」(대통령)」라고 바꾸어 주목을 끌기하지만 黨우위의 中共권력구조아래서는 이직책이 상징적인 최고권좌에 그치는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국가주석은 내년5~6월께 있을 제6기全人代 1차회의에서 선출될것으로 보이며 새국가주석이선출될때까지 葉劍英(85)全人代상무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수행토록한다는 결의문이 이번全人代에서 따로 채택됐다.

국가체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法治的인 방향으로일신 시키려고 노력한 흔적도 역력하다.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을 포함,국무원총리(수상) 부총리 全人代상무위원장 부위원장 최고 인민법원원장및 최고 인민검찰원원장들의 임기가5년이며 2차이상의 중임을 신헌법은 허용치않고 있다. 中共이 국가주요직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신헌법은 비록 노동자들의 파업권리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人民의 기본권리도 대폭확대하여 신체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개인의 존엄성및 가정의 신성함등을 헌법조항에 명시하고있다. 人民日報는 그누구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그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릴수 없다고 밝혀 中共이 法治국가로 변모했음을 엿보여주고있다.

국가중앙군사위의 신설역시 이번 신헌법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중요한 제도상의 변화다. 국가군사위주석은 全人代에서 선출하며 국무원의지배를 받지않으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했고 軍備증강부분은 국방부가 맡도록했다. 국가군사위는 軍의 작전및 훈련지휘권을 행사하고 黨군사위는 정치사상공작만 담당토록하고있다.

그러나 黨총서이 2元化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중앙군사위와 黨중앙군사위의 주요직책은 상호겸임할 가능성이 짙다. 국가주석은 軍통수권을 수행하지않으며 軍통수권은 국가중앙군사위주석이 가지게 된다.

【朴昊鎭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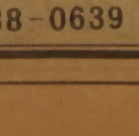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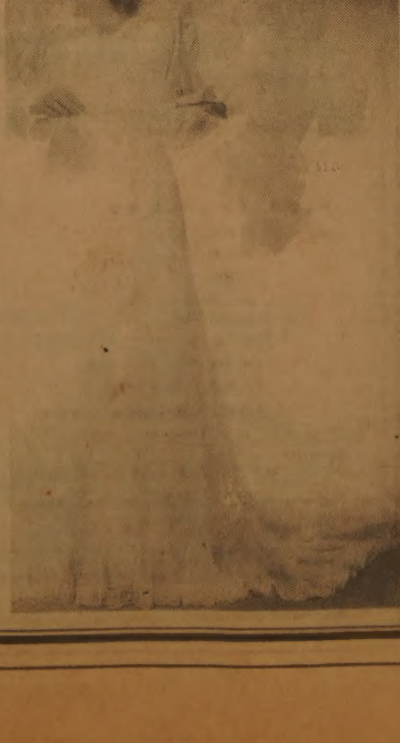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윈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土地수용보상에 不服 訴訟냈어도 公託金찾으면 承服 간주

——大法院합의체、서울遁村洞사건 原審깨고 高法환송

이같은 판결로 공공목적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대부분 헐값의 보상을 받게 마련인 땅주인들로서는 자칫 이중피해를 보게될 공산이 커졌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江東區遁村洞22의3 고용씨등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땅주인이 토지수용기관이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종전의 보상금에 대한 불복의 사를 철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 원고 고씨등의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고씨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0년 2월29일 원호처로 하여금 국립원호병원 신축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자신들 소유인 서울江東區遁村洞 12의1일대 6만7천9백18㎡를 1억5천7백여만원의 보상금에 수용할수 있도록 결정하자 『보상금액이 싯가의 ⅓~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이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내 1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했었다.

당시 원호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차결정이 있은 직후 결정된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고씨등은 이의신청을 우선 내놓고 80년5월25일 이공탁금을 수령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던것.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토지수용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공탁한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위한것』이라고 전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않고 이공탁금을 찾아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것이므로 토지수용기관의 보상금지급의무는 없어진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탁금을 원래 공무원이나 토지수용기관의 권한있는 대표자에게 밝혀야하며 단지 이의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냈다는것만으로는 공탁금수령에 대한 이의유보가 있었다고는 볼수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수용의경우엔 수용기관과 소유자간의 협의매수가 우선이고 협의가안되면 수용기관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되며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건설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게되고 이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내게된다.

한편 민사에서는 채권·채무자간에 채무액에대한 다툼이 있을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액만을 공탁한것을 채권자가 찾아갔다해도 채권자는 나머지 주장하는금액에대해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토지수용보상금 다툼에 있어서는 아쉬운대로 공탁금을찾아 소송비용으로 쓰고 나머지액수를 소송에서 찾을수는 없게된 셈이다.

찾을때는「일부辨濟조건」붙여야

在野"보상금債務 소멸안돼"反論

국가기관이나 시·도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주인들은 보상금액에 불복, 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공탁금을 찾을때는 「일부변제조건」이란 단서를 분명히 밝혀두는게 유리하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會昌대법원판사)는 6일 『땅주인들이 「일

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중이라 할지라도 토지수용기관이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것으로 간주해야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땅주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불리한 처지임을 밝혔다.

특히 토지소유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도 중앙위원회의 결정기간이 정해져있지않아 언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는데다 행정소송에서는 시간이 오래걸려 그동안 송액가 상승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원보상금액보다 증액될수는 있어도 감액될수는 없기때문에 땅주인들로서는 최악의경우 원래의 결정액수는 수령할수있다는 생각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는수가 많은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이밖에 토지수용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액수만 공탁하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냈다해도 토지의 수용이나 사업진행을 정지시킬수없는 불균형이 있다.

이때문에 재야 법조계에서는 『민사의 변제공탁이 희망에 의해 취해지는데 비해 토지수용법상의 공탁은 의무적인것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토지소유권취득을 확보해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하는 한편 토지수용자들에게 보상금수령을 쉽게하자는데 「그취지가 있다」』면서 『공탁이 보상금채무의 변제목적이 아닌이상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령했다해서 보상금채무가 없어진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반론이 강하게 일고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공탁금을 찾아갔다해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것으로는 간주할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지난해만도 대법원까지 올라온게 40건에 액수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梁奎楨기자】

「大雪한파」…全國이"꽁꽁"

어제 서울 零下9·釜山 5도

中部지방 9일께 눈 올듯

大雪을 앞두고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嶺東산간지방과 울릉도에 폭설이 내렸다. 또 갑작스런 추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가운데 어선4척이 침몰, 8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의 첫휴일인 5일아침 영하로 떨어진 기온은 6일아침에는 뚝떨어져 서울영하9도8분, 釜山영하5도, 大關嶺 영하20도5분을 기록, 濟州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전방고지도 白岩山, 香爐峰이 영하19도, 白鶴山이 영하13도등 혹한이 몰아쳤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한파가 중국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생긴것으로 추위는 당분간계속될것이라고 내다보고 8일까지는 영하권에 머물다가 9일을전후해 서울및 중부지방에 눈이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大雪인 7일에도 서울아침의 영하8도를 비롯 嶺南지방이영하4~7도까지 내려가는추위가계속되겠다고 내다봤다.

기상대는 6일상오 전해상에 내렸던 폭풍주의보와 嶺東일부지방에 내렸던 大雪주의보를 해제했다.

한편 5일밤 大關嶺에는 5·8㎝, 울릉도에는 43·1㎝의 폭설이 내렸다.

6일아침 각지방의 최저기온은 다음과같다.(모두영하)

▲서울9·8▲水原9·7▲春川11·1▲大田9·4▲大關嶺20·5▲全州6·6▲秋風嶺9·1▲大邱7·0▲釜山5·5

漁船 4척침몰 8명失踪

【地方綜】폭풍주의보가 내려던 西海일원과 南海서부해상에서는 지난주말 어선4척이 돌풍과 높은 파도에 뒤집혀 침몰, 8명이 실종됐다.

▲5일상오10시께 전남新安郡押海面宋孔里 속칭 역섬앞 10m해상에서 木浦수협소속 봉우호(1·16톤)가 풍랑으로 뒤집혀 선주 崔賢洙씨(61·전남木浦市北橋洞50 3)의 아들 日錫군(18)등 2명이 바닷물에 빠졌다가 日錫군은 헤엄쳐나오고 아버지 崔씨는 실종됐다.

▲이날상오 경기廣州郡東部邑倉隅1里 尹영근씨(39)부부가 漢江으로 고기잡이나갔다가 실종됐다.

▲또 4일하오5시50분께는 전북沃溝郡米面飛雁島里 동남방2㎞해상에서 群山수협소속 용남호(4·6톤·선장尹혁선)가 돌풍에 침몰, 타고있던 유연순씨(54·여)등 5명이 실종됐다.

폭풍주의보 해제

한편 중앙기상대는 6일 西海일원, 南海서부해상및 東海중부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를 해제했다.

大田市 牧洞
顧客예금 5천만원 횡령
마을금고 前이사장 구속

【大田】大田경찰서는 6일 고객의 예금등 5천여만원을 착복한 大田市中區牧洞 마을금고 전이사장 김일섭씨(47·大田市東區蘇提洞30 5)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80년11월27일 大田市中區牧洞 새마을금고사무실에서 정우용씨(41·牧洞2의5)등 조합원 3백여명의 예금중에서 3백78만원을 빼내 쓴 것을비롯, 지난해 9월26일까지 10개월사이 84회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착복했다는것이다.【聯】

即決피고 7명脫走
大邱서 護送소홀 틈타、3명은 잡아

【大邱】즉결심판소에서 구류처분을 받은 즉결피고인 7명이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집단탈출했다가 이중 3명은 검거되고 4명은 달아났다.

지난5일 하오3시30분께 大邱市南區大明洞1652 大邱지법즉결심판소에서 재판을 끝내고 大邱西部경찰서 소속피고인 호송차량을 타고 西部경찰서로 출발하려던 즉결피고인 최모군(20·大邱市西區內唐洞)등 7명이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집단탈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구류피고인13명을 호송차량에 태우기위해 차량문을열어놓고 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을 불러내 승차시키는 순간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하오7시30분께 전직원들을 비상소집、이날밤 늦게까지 3명을검거하고 달아난 박모군(18·西區飛山洞)등 4명을 계속추적중이다.

이들은 욕주 소란등혐의로 지난4일밤 붙잡혀 즉심에회부돼 이날 7~2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聯】

賃金달랜다고 打殺

【晋州】三千浦경찰서는 6일 노임을 받으러온 노무자를 때려 숨지게한 한보종합건설 昆明현장사무소 그레이더운전기사 최규연씨(26·전북沃溝郡瑞穗面禾登里941)와 부기사 장문원씨(26·전북金堤郡風南面平沙里589)등 2명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聯】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水道局 폐관적치장서 불
高校生 2명死傷

【大邱】6일 새벽3시40분께 大邱市壽城區中洞532 大邱市수도국소유 폐관적치장에서 불이나 안에서 잠자던 남모군(17·대구배영고1년)이 불에타 숨지고 남군의 친구 전기철군(18·대구공고2년)이 중화상을 입고 경북대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중태다.

이날 불은 가출한 남군등이 5일 밤늦게 비어있는 수도관 폐관적치장에들어가 놀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자다 목조건물에 옮겨붙어 일어났다.【聯】

찻집 女주인 목졸려 被殺

【釜山】6일상오11시께 부산影島區大橋洞1街113 고려찻집에서 주인 한영숙씨(35·여)가 전기줄로 목이 졸리고 하반신이 벗겨진채숨져있는것을 손님 김종천씨(29·西區下端洞61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에 따르면 전날 이곳에 맡긴 체육복을 찾기위해 이날아침 찻집문을열고 들어가보니 한여인이 홀바닥에 엎드린채 숨져있는데 목에는 길이 3m가량의 배색전기줄이 두번감겨있었고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있었다는것.

한편 影島경찰서는 시체검안결과 한여인이 사망시간이 6일새벽 2시부터 3시사이인것으로 밝혀내고 치정에 의한 살인이거나 불량배들의 우발적인 강도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聯】

◇추위가 더좋은"얼음판 童心"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했다。6일 아침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영하9·8도。전국을 꽁꽁얼린 大雪한파속에서도 썰매를 지치는 어린이들은 즐겁기만하다。【高陽郡碧蹄邑에서 金海雲기자찍음】

大邱시내 國校 18일 겨울放學

【大邱】대구시교위는 6일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를앓는 어린이가 늘어나자 당초21일부터 실시하려던 국교생들의 겨울방학을 3일앞당겨 오는 18일부터 실시키로했다.

시교위는 최근 감기가 극성을부려 각 국교당 1일평균 30~60명씩의 어린이들이 감기로 결석을하고있어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교를 할수있도록했으나 날씨가 갑자기추워져 이같이 겨울방학을 앞당겨 실시키로했다는것이다.【聯】

셋방 일가족 4명 연탄가스에 숨져

【蔚山】6일상오 7시20분께 경남蔚山市華亭洞669의13 한구문씨(73)집에 세들어사는 노영길씨(30·노동)와 부인 김봉순씨(26) 장남 상민군(3) 차남 상훈군(1)등 일가족 4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모두 숨지고 노씨의 처남 김봉호씨(20)가 중태에 빠져있는것을 노씨의 의형제인 정말옥씨(27·蔚山市一山洞535의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열흘간 無料법률상담
오늘부터 34회 人權주간

오늘(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인권주간. 법무부와 대한변협등유관기관및단체에서는 이번 인권주간을 맞아「마음으로 인권존중、행동으로 인권옹호」「인권위해 질서있고 질서속에 인권있다」는 표어를 내걸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펴기로하는 한편 10일상오 10시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제34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 행사를 갖는다.

제34회 인권주간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곳은 각급검찰청및 대한변협과 산하지방변호사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본부및 각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인권옹호협회, 釜山가정법률상담소, 水原인권옹호협회, 대한사법서사 협회등이다.

住民등록표 위조
아파트分讓…구속

서울江東경찰서는 6일 李熙祥씨(33·무직·서울江東區風納洞231의4)를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風納洞사무소 직원으로 일했던 李씨는 지난해 2월 風納洞사무소에 찾아가 직원들이 바쁜틈을 이용、주민등록표의 전입일자를 79년에서 77년으로, 호주를 자신의 이름에서 어머니 李모씨로 고쳐 아파트분양신청순위를 1순위로 만든후 開浦洞주공아파트 분양신청때 지난해 10월26일 開浦洞1차아파트 15평형(분양가 1천2백만원) 한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다.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5行뉴스

◆40代종업원 溺死體로

【東草】퇴근길에 행방불명됐던 東草市永郞洞소재 수산물가공공장인 대양상사 종업원 장춘식씨(46·東草市校洞8통2반)가 16일만인 5일 東草항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聯】

◆50대여인 焚身자살

【永川】5일밤11시30분께 경북永川郡華北面正覺1洞 김분이여인(51)이 방안에 있던 가재도구에 불을지르고 분신자살했다.【聯】

◆20대여인 옥상서추락死

【釜山】5일하오5시10분께 釜山市釜山鎭區楊亭4洞19이 일영씨집 옥상에서 이집에 세들어사는 이귀자여인(22)이 옥상계단에서 실족, 3m 계단아래로 떨어져 숨졌다.【聯】

「꽃중의 꽃」 서울龍山보건소장 朱惠蘭씨
淪落街 새삶 돕는 梨泰院「큰 언니」

서울龍山보건소장 朱惠蘭씨(34·여·사진)가「人口에 膾炙」되고있는것은 우선 그녀가 미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별난 공무원이기때문이다.

서울에는 보건소가 17개있고 그중7군데는 여자가 보건소장이지만, 梨泰院을 끼고있는 龍山보건소를 그녀가 맡았다는것은 꽤나 시사적이다.

별나다는것은 윤락가를 제집드나들듯하면서 「큰언니」로 불린다는 점 말고도 시청의 고위간부와 한께있는자리에서도 상스러운놈이라는 그녀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 수직의관계를 생명으로하는 공무원사회의 틀이 다소 벗겨지는 일이 많은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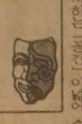
시청간부 사이에서 그녀는 「예쁜 小악당」(Pretty little gangster)으로 통하고 있는데 이별명은 남다른 정열에다 유창한 영어실력이 곁들여져 美8군과 유대를 맺으면서 더욱 그럴듯 해지고있다.

高大의대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그녀가 윤락가와 인연을 맺은것은 충북淸原의 賢都面보건지소장을 거쳐 기지촌인 議政府의보건소장으로 옮긴 76년부터다. 그녀는 성병과 환각제에 시달리는 윤락녀들과 식사는 물론, 잠자리까지 함께하면서 돌봐주었고 운전、미용등 기술교육을 시켜주었다. 그결과 하루2~3명꼴로 윤락녀들은 고향을 찾아가게 됐고 기술습득자중 15명이 議政府시내에서 운전을하며 새삶을살고있다.

지난해 6월 龍山보건소로 온 뒤에는 梨泰院 龍山역 주변등의 윤락녀 1천2백여명을 위해 개나리회、희망회등을 조직, 포주들의착취를 막기위해 애쓰고 있으며 매주 1회 정기검진도 해주고 있다.

부모가 모두 의학박사요 언니도 병원을 차린 의학집안의 딸인 그녀는 남자들이 무안할이만큼 성병얘기를 거침없이 하기일쑤이다. 그녀에 의하면 요즘 美國에서 한창 문제가 된 헤르페스라는 신종성병이 다행스럽게도 梨泰院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2번 외국을 다녀왔고 지난2일에는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여성지여생활관을 준공했다. 여성생활관은 스스로 서류를 들고 총리실에 찾아가 떼를 쓰기도 했다. 나이많은 남자간부라도 일이 틀리면 호통을 친는등 행정력도 대단하다. 「꽃중의꽃」이라는 무스캣 소리가 우습게 들리지않는 여장부다. 【朴珍烈기자】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육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급구·여자 웨이츄레스와 주방 헬퍼 구합니다.

한국, 6強決勝리그 올라

世界女子핸드볼 유럽圈外팀으론 처음

金玉花·柳京美·金順淑트리오 猛爆…불가리아 꺾어

【미스콜크(헝가리)=聯】 한국여자핸드볼이 세계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6일 헝가리 미스콜크시립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예선 마지막날 B조경기에서 金玉花(7번) 柳京美(5번) 金順淑(4번)트리오의 수훈으로 강적 불가리아를 26-23으로 꺾고 루마니아를 20-16으로 물리친 소련에 이어 2위로 6强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올랐다.

한국은 루마니아와 동률1승1무1패를 기록했으나 골득실(한국 플러스1 루마니아 마이너스3)에서 앞서 유럽지역이아닌 팀으로는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8일 유고와의 결승리그 첫게임을 비롯, 9일 A조1위, 11일 A조2위, 13일에는 체코와 각각 격돌한다. 결승리그는 모두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이날 경기에서 초반수비난조로 0-2로 뒤지던 한국은 주장 金順淑의 스카이슛과 金玉花의 중거리슛으로 3-2로 뒤집고 張玉齡의 질풍같은 속공과 金玉花·尹英淑의 센터 및 사이드돌파로 점수차를 벌려 전반에서 3골을 앞섰다.

후반에서도 金玉花의 중·장거리슛과 柳京美의 다이빙슛에 尹秉順까지 가세, 앞서나간 한국은 1백80cm의 장신 에네바와 카라카세바등의 포스트플레이와 롱슛에 눌려 22-22로 타이를 허용했다. 한국은 이 고비에서 尹秉順의 7m페널티로 리드를 되찾고 金先玉·柳京美의 터닝슛이 연속 불가리아의 네트를 갈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2시간10분15초 볼링거, 日마라톤

【福岡(日)=聯】日本후꾸오까(福岡)市에서 5일 열린 제17회 후꾸오까국제마라톤대회에서 뉴질랜드의 폴·볼링거선수(29)가 2시간10분15초의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시간24분19초 크랩, 星港마라톤

【싱가포르(新)=聯】英國공군 기술병인 레이·크랩(27)이 5일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24분19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 533·2301

성경통신교육

비교파적·체계적 교육

- 교과과정 : 보통과·연구과·대학과
- 신청대상 : 남녀노소 제한없음
- 신청주소 : B.C.C. P.O.BOX 17638 L.A., CA. 90017
- 사 무 실 : 1830 W. 8th St. #103, L.A.
- 전 화 : (213) 387-8669

※ 책대금, 학비 무료

성경통신교육원

"雄飛는 이제부터…"

뉴델리遠征團 凱旋 회견

◇자랑스런 얼굴 자랑스런 3관왕 崔允喜(左)와 마라톤왕자 金梁坤.

◇기자회견서 金鍾烈 한국선수단장(左 두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있다.

"滿足은 없다 올림픽 채비"

값진戰利品은「自信」…中共·日누를 피땀努力을

陸上·水泳등 기본종목 더큰振興 다짐도

金메달 28개를안고 25일만에개선한 한국선수단 20개종목의 임원·선수들은오늘의결과에 만족않고 더욱 정진, 84년 LA올림픽·86년 아시안게임·88년 서울올림픽 때에는보다 좋은성적을 올리자고 다짐했다.

충격적인 예선탈락으로 고개를수그린채 귀국한 축구대표선수들도『우리에게도 햇빛이 비칠날이 멀지않아 올것이다. 혹독한 매질보다 따뜻한격려가아쉽다』고말했다.

다음은 6일하오4시 泰陵선수촌 월계관서 가진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지서의 대비책과 이번대회의 평가는?

▲金鍾烈단장=태릉선수촌서의 훈련방법과 계획등 모두가 어떻게하면 현지에서잘 적응하여 우리기량을 유지할수있는가에 고심했다. 식사, 음료, 질병등 이세가지에 중점대비했는데 현지서 큰차질이없었다. 임원·선수들이 일심동체가 되었고 애국심으로 뭉쳐서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성과의 공적을 선수들과 감독·코치들에게 돌리고싶다. 몇종목서 메달을 못딴데대해 깊이 죄송스럽게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84년 LA올림픽, 86년아시안게임 88년서울올림픽을앞둔 체육회의대비책은무엇인가.

▲鄭周永회장=대통령께서 이번대회에 특별한 관심을쏟아 모든선수들이 크게 분발할수있었다. 중공이 최강으로 등장했는데 한국도 노력하면 일본·중공등을 극복할수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모든 체육행정등을 성적으로 대답하겠다.

—이번대회서 올린 스포츠외교의 성과는 어떤것인가?

▲金단장=이번만큼 체육계 인사들이 중요한 책임감을 느낀적이 과거에 없었다고 본다. 모든 선수·임원들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했고 86년 아시안게임 개최국으로서의 잇점을 살려 큰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취약종목에 대한 보강책은?

▲鄭회장=일부 종목에서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둔데대해 회장으로서 죄송스럽게여긴다. 앞으로 이들 종목에 보다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것으로 확신한다.

—남북대결에서 압승을 거두었는데 앞으로는 이차원을 넘어 中共·日本등과 선두다툼을 벌여야할것으로 보고있다. 중점종목은 어떤것인가.

▲金晟集선수촌장=아직도 중공과 일본에는 상당한격차가있다. 우리가 이번에 金을 따낸종목은 10개종목 안팎이다. 앞으로 선두다툼을 벌이기위해서는 육상, 수영등 기본종목에 보다더강력한 진흥책이 있어야할것으로 본다.

—메달리스트들에대한 보다나은 대우를 구상하고있는가?

▲鄭회장=메달을 딴다는 것은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도를받아 체육회와 각경기연맹회장들 많은사람들이 모든선수들에게 희망을 가질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수들이 자기노력만큼의 생활을 할수있도록회장으로서 최선을다하겠다.

—3개의 金·銀메달을 따낸 崔允喜, 允庭자매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允喜=3개씩이나 金메달을 따서 무척기쁘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LA올림픽에는 물론 86년 88년까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允庭=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어쩔수없이 銀메달에그쳤다. 84년 LA올림픽서는 세계8強에들도록, 86년 서울아시안게임서는 이번에 못딴 金메달을 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자농구는 中共세의 도전을 어떻게 막을것인가?

▲方烈감독=중공은 이번에 신장뿐만 멤버를 대폭교체, 아시아 정상보다는 LA올림픽을 대비한것으로 보였다. 중공의 장기적인 안목에 놀랐다. 우리가 이번에이겼다해서 다음에도 이길수있다고 장담할수없다. 우리도 84년, 86년, 88년의 잇단큰대회에대비, 연차적인 선수보강및 훈련을 해야할것으로 본다.

—申順浩선수가 느낀 중공테니스는?

▲申=비록 우리가 중공을 앞질렀다고는 하나 그수준은 거의 같았다. 우리가 이길수 있었던것은 정신력이 앞섰고, 체력훈련을 많이했던 결과라고 본다.

—복싱은 당초 金3개를 목표로했는데 7개씩이나 휩쓸게된 이유는?

▲蔡用錫감독=지난번 서울서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리선수들은 7개의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그당시는 몽고, 북한등 공산권선수들이 불참해 목표를 설정할수없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만족하지말고 더열심히 노력하도록 분발을 촉구했는데 이것이 좋은 성적을 거둔 계기가 된것같다.

—올림픽사상 처음 金메달을딴 레슬링이 기대이하의성적을 얻게된이유는?

▲金金鍾길감독=부진한 성적을올려 대단히 죄송하다. 레슬링은 종목특성상 경쟁력 없는 훈련을 1년이상 치렀다. 이것과 선수들이 경쟁력을 갖지못해 체력훈련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났다. 그러나 우리선수들은 충분히 차질이있다고 본다. 내년에는 3~4배수의 인원으로 훈련에 몰입한다면 84년 LA서 또다시 金메달을 딸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잘싸우고 돌아왔다" 한마음한뜻 沿道엔 환영물결

추위잊은마중 흥분

◆…한국선수단일행3백91명을태운 KAL602호 특별전세기(기장 金진오·48)는 6일하오 예정보다 20분늦은 1시50분 金浦공항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갑작스런 추위에도 불구, 공항주변에는 약4~5백명의 체육계인사와 가족들이 1시간여전부터 몰려들어 흥분된 분위기를 감추지못했으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린 수영연맹의 李明博회장, 테니스협회 李鍾祿회장등은 시종 싱글벙글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V字그리며 차례로

◆…전세기의 출입문이 열리자 선수단은 대형 태극기를든 方烈기수를 앞세우고 金鍾烈단장, 金相謙부회장등이 손으로 V자를 그리며 트랩을 내려왔고 수영의 3관왕인 崔允喜, 테니스의 申順浩등이 자랑스런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려왔다.

트랩밑에서 기다리고있던 체육계인사들은 일일이 악수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백색의 얇은 유니폼을 입은선수들은 추위도 잊은채 램프에서 종목별로 기념촬영을 하는등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오픈카30·버스10대

◆…선수들이 탄 KAL점보가 내리자 李源京 체육부장관, 金溶植 올림픽 조직위원장 鄭周永체육회장등이 기내로 들어가 선수단을 영접했다.

잠시후 경찰악대의 개선행진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方烈기수를 앞세운 선수단은 金鍾烈단장을 선두로 본부임원 崔允喜 申順浩등 3관왕을 비롯한 메달리스트 순서로 차례로 트랩을내려왔다.

金鍾烈 선수단장의 귀국보고가 끝나자 선수단은 버스 9대에 분승, 카퍼레이드출발지인 汝矣島로 향했으며 하오3시반 30대의 오픈카와 10대의 버스에 올라 서울대교~아현동~광화문을 거쳐 태릉선수촌에 이르는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9대의 경찰사이드카가 인도하는 오픈카에는 金鍾烈단장을 선두로 金晟集총감독, 수영의 3관왕 崔允喜·允庭자매, 테니스의 申順浩선수가 탔으며 육상 궁도 역도 사이클 배드민턴 복싱 농구선수들이 차례로 분승했다.

연도에나와 환영을하던 회사원 崔寅鎬씨(35)는『종합3위를 차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위신을 과시한 우리선수단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며『국가에서 좀더 과감히 스포츠육성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며 박수를 보냈다.

오픈카가 하오2시55분께 光化門네거리에 이르자 연도의 시민들은 차량앞에 부착된 선수들의 이름을보고『저선수가 수영의 崔允喜다』『마라톤의 金梁坤선수다』고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던지기도 했다.

환영나온 丁福均씨(35·상업·경기光明市소하2洞91 1의25)는『기대보다더많은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낸다』며『계속 선수단에게 아낌없는지원과 복지혜택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는 더좋은 성과를 얻을수있도록 전국민이성원을 보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報道陣焦점 崔允喜

◆…보도진의 초점은 단연 崔允喜. 흰색 유니폼에 금메달3, 동메달1개(혼계영4백m)를 목에건 崔允喜는 카메라세례에 고개를숙인채 수줍어했고 엄마가 가장 보고싶다고 대답.

공항밖에서는 현표에 들어가지못한 선수들의 가족, 친지와 동료들이 플래카드, 피켓트를들고 기다리다 선수들이 汝矣島로 직행하자 서둘러 뒤를 따르기도.

崔允喜양이 재학중인 서울사대부속여중학생 60여명이 스쿨버스를 타고 환영을나와 금후의 개선을 축하했다.

長官환영의밤 참석

◆…24일만에 泰陵선수촌에 귀환한 선수단은 저녁6시 신라호텔에서 李源京체육부장관이 베푸는『환영의 밤』에 참석했으며 7일상오10시 중앙청광장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OCA出帆

AGF 31년만에 終幕

파하드 初代會長에

【뉴델리=聯】AGF(아시아경기연맹)를 대신할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가 5일 창립총회를 열고 AGF부회장인 세이크·파하드씨(쿠웨이트)를 초대회장으로 선출, 출범했다.

지난 1951년부터 이번 뉴델리 아시안 게임까지 존속한 AGF는 이로써 31년만에 종막을 고하고 오는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 게임은 OCA의 이름아래 열리게 됐다.

選手353명 참가

'82프로복싱 新人王戰

공동기획·오늘개막 日刊스포츠·MBC

82년도 프로복싱 신인왕전(日刊스포츠·TBC·MBC 공동기획)이 7일 문화체육관에서 개막된다.

지난77년에 첫출발, 국내 신인프로복서의 명실상부한 등용문 구실을 해온 이대회는 12일까지 예선전을 벌이고 내년 1월에 각체급별 우승자및 최우수·우수복서를 선발한다.

올해 참가 선수는 전국62개 체육관서 3백53명이다. 가장많은 선수를 출전시킨 체육관은 東亞체육관으로19명이며 이뒤로 極東中央(17명) 元振奎插(14명) 極東西部(14명)가 따르고있다.

全南 선두

統一驛傳 3구간서

제12회 통일역전 마라톤대회가 지난4일 全州서 출발, 3일째를맞은 6일 晋州까지 314.4㎞ 3구간종합기록에서 全南팀이 17시간13분0초로 선두를 마크했다.

全南은 제3구간(順天—晋州·89㎞) 레이스서도 4시간59분18초로 1위를 차지했다.

◇3구간(全州—晋州·314.4㎞) 중간순위=①전남 17시간13분0초 ②전북 17시간22분14초 ③경북 17시간23분32초 ④부산 17시간30분22초 ⑤대구 17시간32분2초 ⑥충북 17시간44분17초 ⑦경기 17시간46분10초 ⑧서울 17시간57분6초

◇제3구간(順天—晋州·89㎞) 순위=①전남 4시간59분18초 ②경북 5시간3분21초 ③대구 5시간7분9초 ④부산 5시간8분31초 ⑤전북 5시간9분54초 ⑥충북 5시간11분23초 ⑦인천 5시간15분35초 ⑧경기 5시간16분9초 ⑨서울 5시간19분16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4>

부드러운 겨울⑩

『우리 일남이 버릇은 좀 없어도 나쁜 앤 아네요. 나 고생하는 걸 어찌나 마음 쓰는지 동네선 효자났다고 소문 났걸요』

식모에게 나가자 옥이는 변명하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알아. 그래서 아들 하난 잘 뒀다고 내 안했남?』

『고마와요. 언니 여러가지로』

문득 둘 사이가 은밀해졌다. 그러나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생급스럽게 다가온 은밀함에 서로 몸을 사렸다.

옥이는 막연히 파랍해서 헛기침을 했고, 수지는 은밀한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풀어야할 응어리가 꿰이는 걸 느끼고 조바심했다.

옥이의 헛기침은 점차 본격적인 기침으로 변했다. 거의 숨이 끊어질듯이 몰려 이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미안해하는 말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기침이 더욱 치열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옥이는 말을 포기하고 오롯이 기침에 맡겼다. 피죄죄한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처참하게 구겨진 작은 얼굴에선 땀이 비 오듯했다.

수지는 겁에 질려 일남이를 부를까하다가 어린것에게 보이기엔 너무한 참상인것같아 혼자서 수습하고자했다. 수습이라야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었다.

등을 어루만지듯 두들겨주다가 그건 토악질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인것같아, 고장난 발동기가 들어앉은 것처럼 불규칙하게 글럭대며 요동치는 가슴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 효험이 있었는지 기진했는지 기침이 스르르 멎고 옥이의 몸이 젖은 빨래처럼 무겁게 처졌다. 수지는 저절로 자기 쪽에 안긴 옥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기침같았다. 병색이 흐르는 그녀의 때 이른 주름살은 바로 기침할때 구겨진 자국이었다.

수지는 쩌르는듯한 슬픔을 느꼈다.

『언제부터지? 이런 기침인』

『오래 됐어요』

『병원에 가봤나?』

『아는 병인걸요』

옥이가 희미하게웃었다.

『무슨 병인데?』

『나쁜 병 아녜요. 연탄가스때메 그렇거예요. 연탄 갈 때, 어떤 때는 눈알이 쓰리고 목구멍이 막히게 독한 단내가 올라올 적이 있거던요. 그럴때마다 기침이 나더니 그게 그만 버릇이 돼가지곤 아무때나 그러네요, 창피하게…』

옥이는 이치에 맞지않는 거짓말을 둘러댄 아이처럼 어색하게 웃으면서 축 처진 몸을 바로 잡았다.

아아, 수지는 형언할수 없는 비애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같아 이렇게 신음했다. 어쩌면 그녀는 옥이의 무지를 고래고래 소리 쳐 욕하고 싶은걸 그렇게 참아냈는지도 모른다. 무지가 유일한 위안이자 힘인 삶에 대해 또한 얼마나 무지한가.

수지는 숨쉬히 자신을 위로하기위해 허둥대며 유기사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을 적어놓은 종이를 옥이에게 내 주었다.

『언니 정말 고마와요. 이렇게 일이쉽게 풀릴줄은 몰랐어요. 꿈만 같아요』

옥이는 그게 여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황공하게 받아 쪽에 안으면서 좋아서어쩔 줄을 몰랐다.

이층에서 아이들의 함성과 발 구르는소리로 집이흔들렸다. 아이들은 마치 그집의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시험해보려는듯이 지치지도 않고 발을 굴렀다.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F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상하수도, 부엌, 난방, 온돌방
시설및 고장 수리.
전화 : 532-8662, 535-7878 류동훈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SHERATON HOTEL
123 Queen St. W.
전화: 366-1188(R) 928-3335 김현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즈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탁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Part Time 남자 헬퍼(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동쪽 끝.
전화: 282－5632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여자 룸 메이트 구함. 1 Bed－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오후5시반 이후)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81년형 GMC밴트럭 17,000Km
다크 블루, 사정상 매매코자 함.
전화 : 365－0904 Mr.안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컴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2 Bed Rm. 아파트 렌트
Royal York & Queen's way 근방. 월: $370
전화 : 259－1724, 251－703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파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밍 크

밍크 털공장 직매점 (Canada Mink Centre)
주소 : 712 Bloor St. W.
전화 : 535－7878, 532－8662 류동훈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438－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개업1주년기념

SKI SPECIAL

ALL SKI 25%~30% OFF

● 겨울은 브렌든스포츠와 함께

● 즐겁고 ● 건강하게

KNEISSLE
DOWN HILL SKI PAKAGE

SALE PRICE

DYNASTAR	SKI	$290 ~ 420
HEAD		$150 ~ 220

NORVINCA BOOTS

TYROLIA BINDING

LOOK 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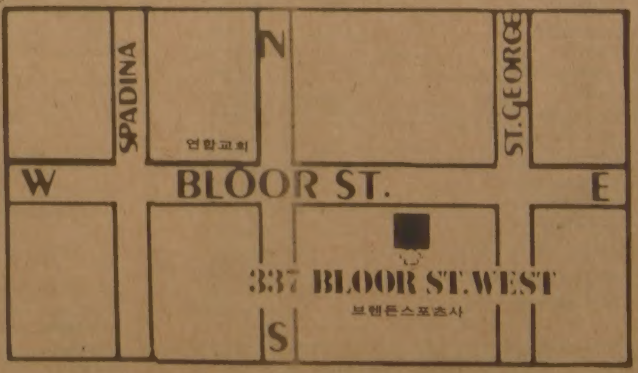
COUNTRY SKI SALE PRICE

SKI
BOOTS
BINDING
POLE

59.99 99.99

HOT WAX 10.00

NEW SKI GLOVES 30% OFF
SKI TUNE-UP FREE



브렌든 스포츠

337 BLOOR ST.W. TORONTO 〈연합교회 건너편〉 T,598-3732

GRAPHIC ARTIST BonMoo Koo